

대한민국 경제와 한민족의 DNA

金錫東



차례

- I . 대한민국 현대경제사 - 기적의 드라마
- II . 유라시아 기마민족사 - 노마드의 DNA
- III . 한민족의 고대 역사 - 사라진 역사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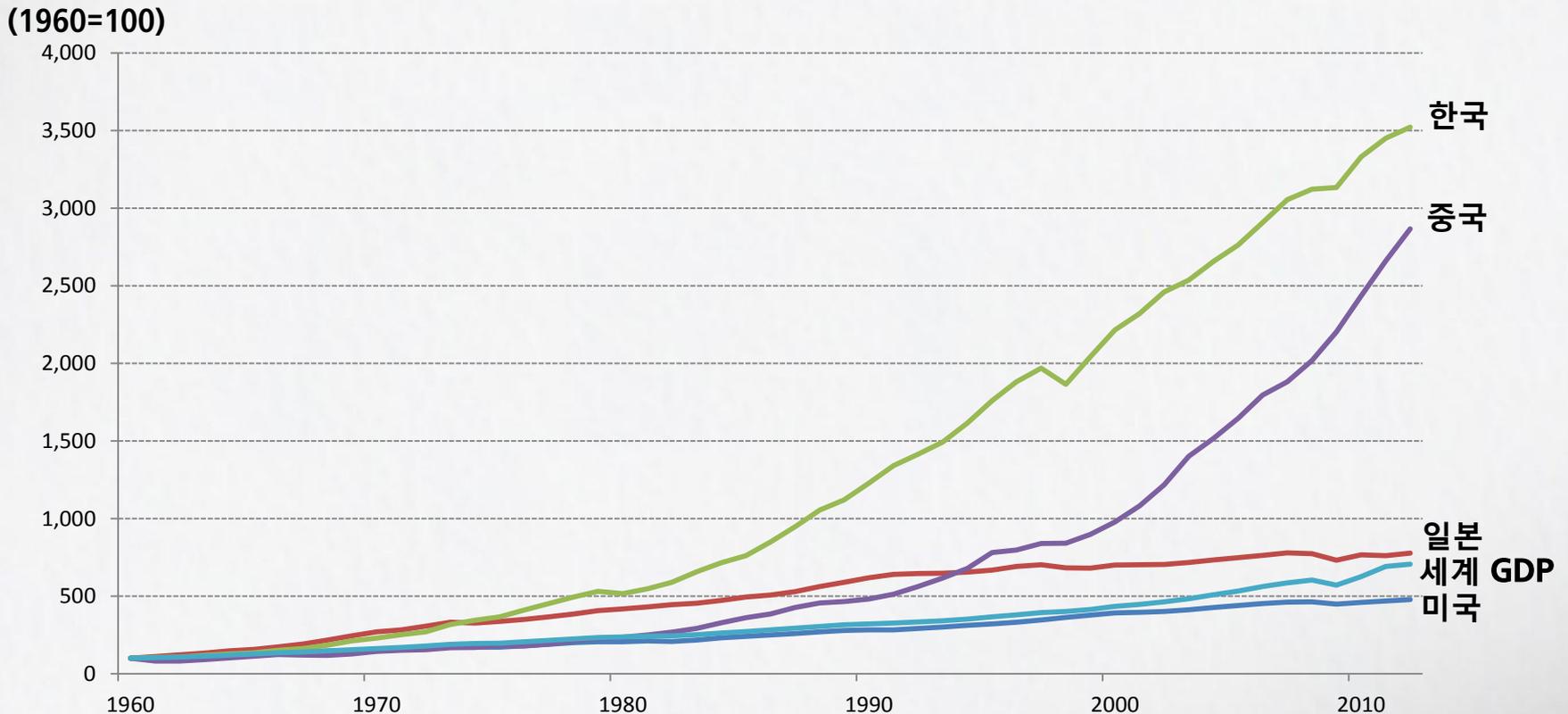
I 대한민국 현대경제사 -기적의 드라마

1. 한강의 기적
2.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
3. 기적의 원동력

1. 한강의 기적

- 대한민국은 1960년 이후 세계사에 기록될 독보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
- 1960~2014년 동안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37.6배 증가 (세계 GDP 약 7.3배 증가)
→ 세계 13위 경제대국을 건설

주요국의 실질 GDP 추이 (196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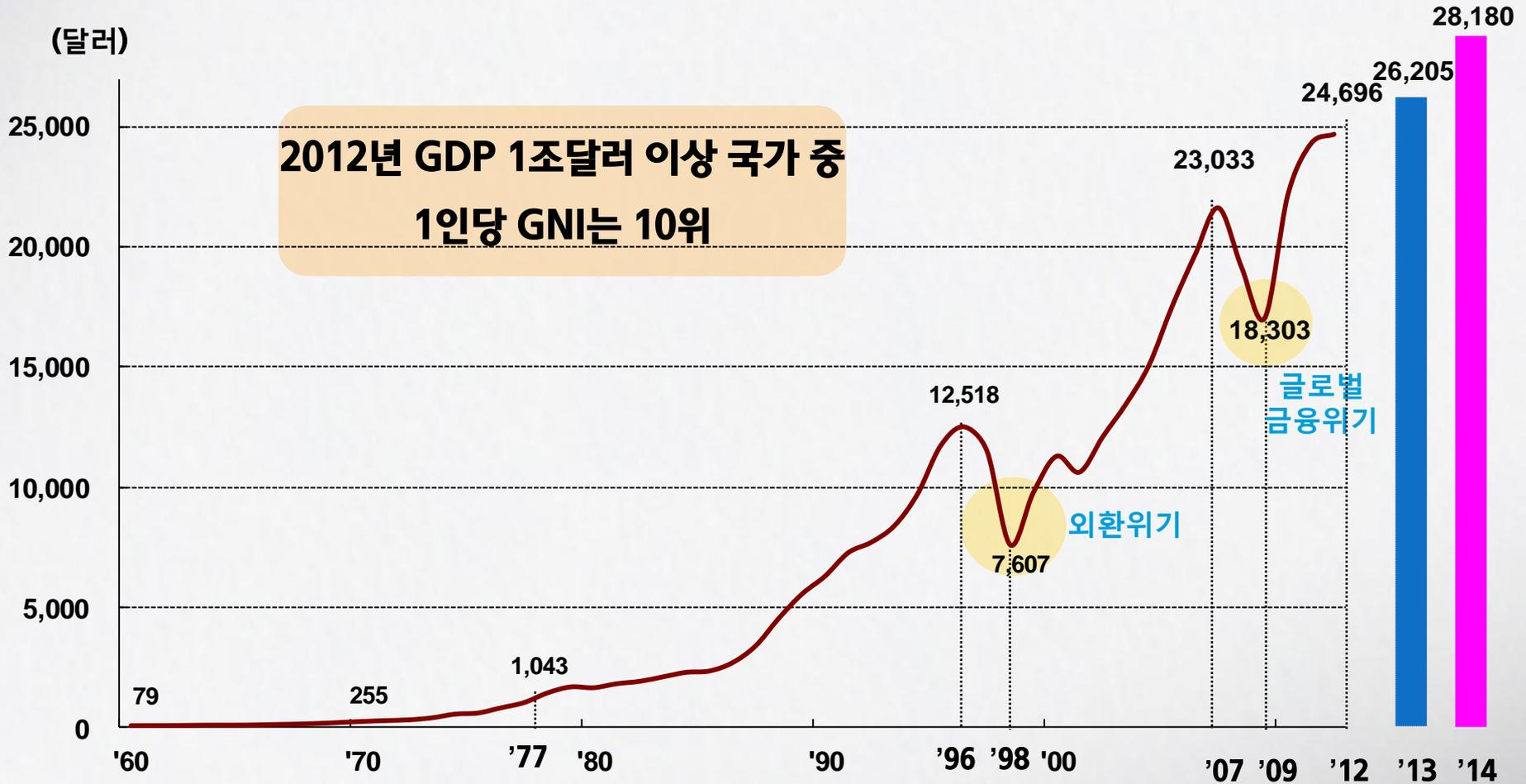
주: 1. 1960년 GDP=100으로 하여 각국 실질 GDP의 추이를 표시

2.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4) 참조

1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불 시대를 향하여

- 1인당 국민소득(달러): 60년 79 → 07년 23,033 → 12년 24,696 → 13년 26,205
 → 18.8배 성장 (실질 기준) ※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은 28,180달러 (잠정치)
- 1인당 국민소득 순위: 1960년 101위(125개국중) → 2013년 21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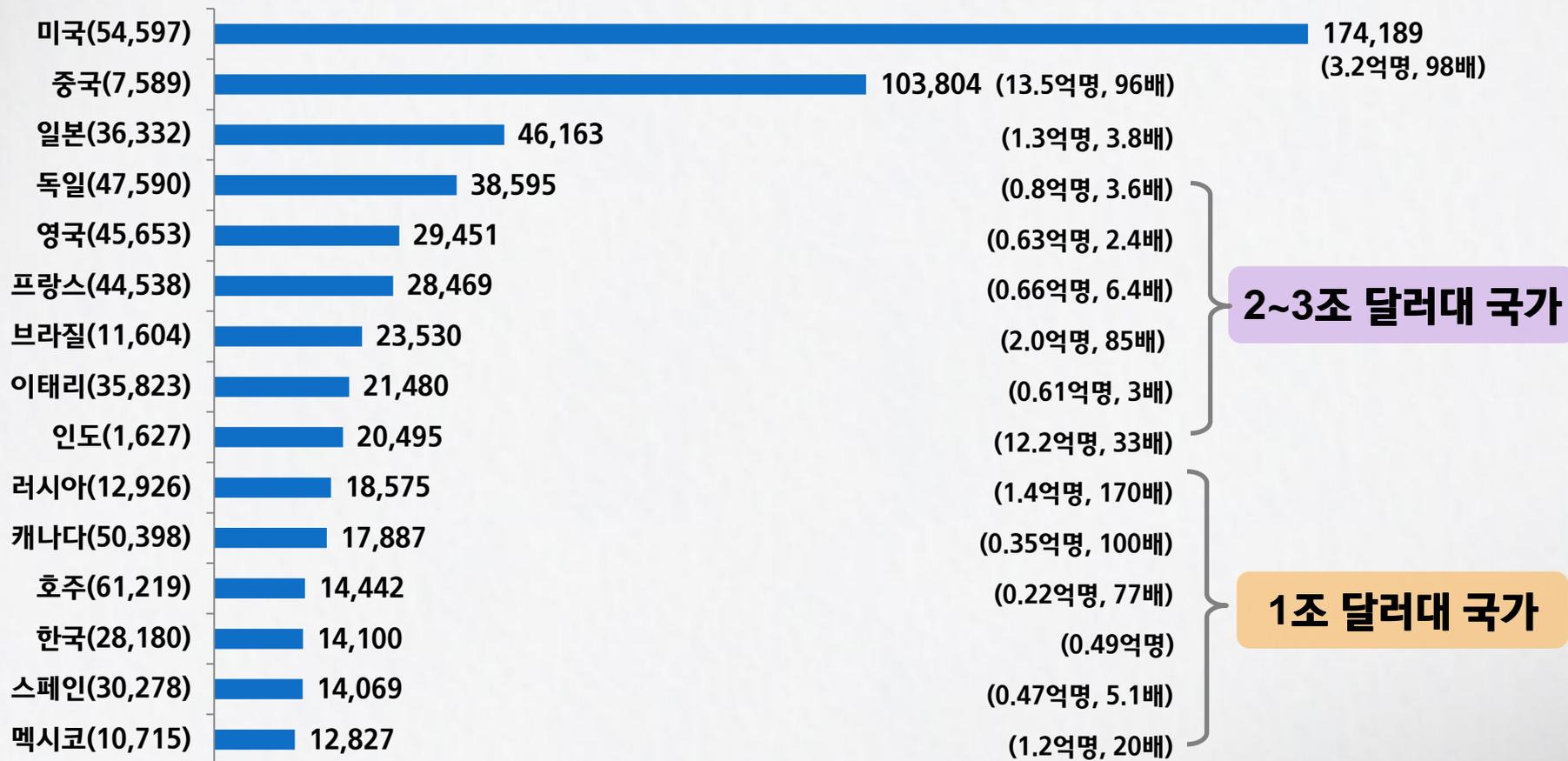


2 세계 속의 한국경제

-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1조 4,100억달러로 세계 13위

주요국의 GDP 규모 (2014년)

(단위: 억달러)



2~3조 달러대 국가

1조 달러대 국가

주: 국가명 뒤의 ()는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 배율은 한국면적 대비 비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4) 참조, 인구·면적: CIA(The World Factbook)

3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와의 비교

스페인(16세기)

단위: 백만 달러
(실질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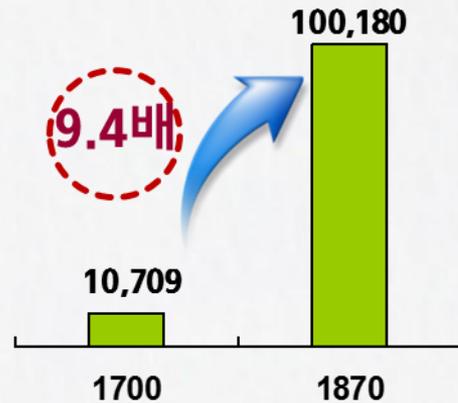
세계GDP 1.3배 증가

네덜란드(16~17세기)



세계GDP 1.5배 증가

영국(18~19세기)



세계GDP 3.0배 증가

미국(19~20세기)

단위: 백만 달러
(실질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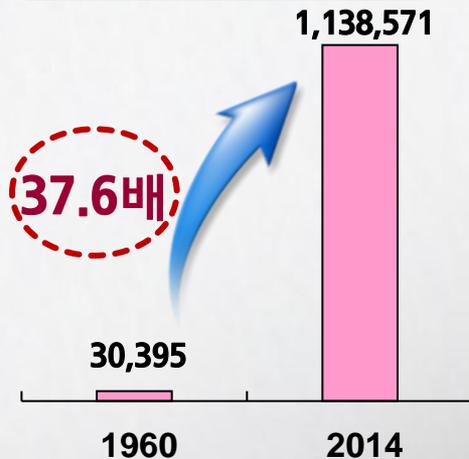
세계GDP 4.1배 증가

일본(19~20세기)



세계GDP 5.0배 증가

한국(20~2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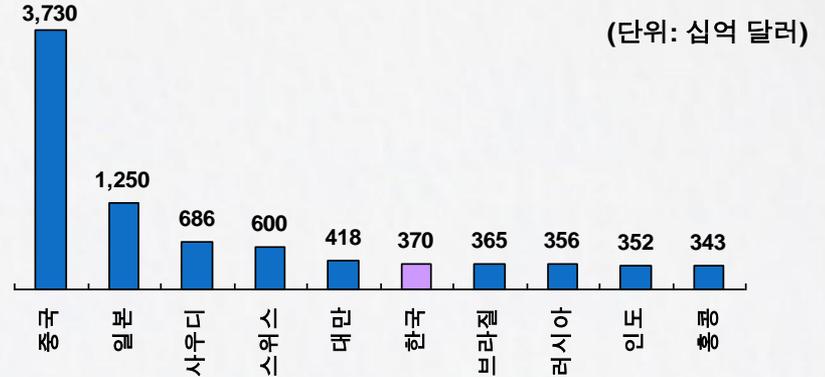


세계GDP 7.3배 증가

2.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

- 한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
- OECD출범후 `원조 수혜국`이 `원조공여국`으로 바뀐 최초 사례
- 세계 6번째의 외환보유국가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현황



주: 2015년 1분기말 기준
 자료: IMF, 주요국 중앙은행



1 제조업 강국

- 세계 5대의 제조업 강대국[12년 미 CSR]
 - ✓ 지식집약적 제조업(IT, SW, 반도체 등)의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 (상장기업 기준)



주력 수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2013)

품목	점유율(%)	순위
DRAM	65.5	1
스마트폰	30.1	2
자동차	9.8	5
조선	30.8	2
디스플레이	48.1	1
철강	4.1	6

2 세계 7위의 수출대국

-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156억달러로 세계 7위
 - ✓ 2009년 세계 9위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0년부터 7위를 유지
 - ✓ 195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에 불과

세계 수출순위 (1950~2013)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미국	중국	중국
2	영국	독일	독일	독일	미국	독일	미국	미국
3	캐나다	영국	영국	일본	일본	일본	독일	독일
4	프랑스	프랑스	일본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5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영국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6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사우디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프랑스
7	호주	일본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한국	한국
8	네덜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9	브라질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러시아
10	이탈리아	스웨덴	스웨덴	벨기에	홍콩	홍콩	영국	홍콩
	한국(85위)	한국(88위)	한국(43위)	한국(26위)	한국(11위)	한국(12위)	7위	7위

주: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수출액이 급증한 덕분에 2008년, 2010~2013년 10위권에 진입

3 해외 건설: 초대형 프로젝트, 플랜트 수출시장의 강자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

- 항구, 기반시설 건설 : 수심 10m 바다 매립
* 길이 8km, 폭 2km 매립
- 규모(9.3억불) : 한국 최대, 당시 세계 최대
* '76년 한국 정부예산의 30%, 수출의 12%

리비아
대수로
공사

- GMR (Great Man-made River) Project:
사하라의 지하수를 북부 지중해 공급
* 4,200km의 송수관 건설 : 1단계(' 83, \$38억),
2단계(' 90, \$61억), 3단계(' 98, \$51억)에 걸쳐 진행

- 세계 6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2012년 기준)
✓ (09년) 12위, (10년) 7위, (11년) 7위, (12년) 6위
✓ 중동 지역 매출은 1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1 위

	국가	업체수(개)	점유율(%)
1	스페인	12	14.3
2	미국	33	14.0
3	중국	55	13.1
4	독일	4	8.5
5	프랑스	4	8.5
6	대한민국	15	8.1
7	이탈리아	17	6.1
!			
12	호주	4	2.0

-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천억 달러 돌파('12.5)
✓ 분야별 수주액: 플랜트 건설(2,683억달러, 전체의 54%),
건축(24%), 토목 (18%), 엔지니어링 등 기타 (4%) 순
- '1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52억달러로 주요 품목 수출액
(반도체 571억, 석유제품 528억, 자동차 487억)을 상회

출처 : ENR(2013.8월)
* 미국의 건설 전문지로 매년 세계 250대 해외 건설사 순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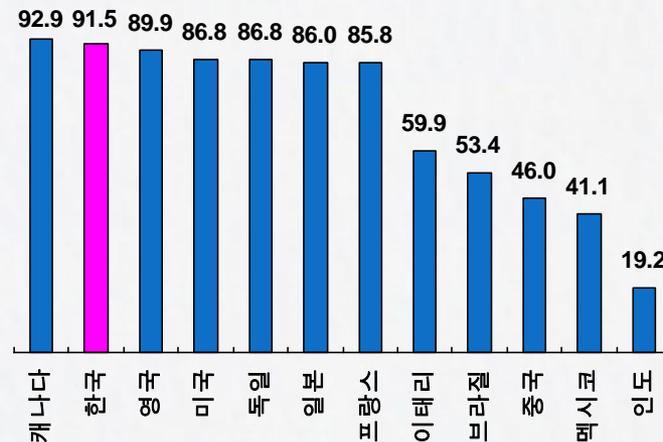
4 혁신하는 경제

- IT·모바일 트렌드를 선도
 - ✓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25.3 Mbps)
- “Most Innovative Country in the World”
 - :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순위 (2014)

종합 순위	국가	분야별 순위						
		R&D	제조 능력	생산성	첨단 기술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1	한국	3	2	33	3	3	6	2
2	스웨덴	4	22	7	5	13	8	26
3	미국	10	24	10	1	37	12	5
4	일본	5	6	14	8	30	9	3
5	독일	9	3	20	6	25	17	6
6	덴마크	6	56	6	17	27	3	14
7	싱가폴	17	14	15	14	24	4	34
8	스위스	8	16	3	9	35	22	29
9	핀란드	2	21	12	32	5	2	15
10	대만	7	-	30	2	2	5	1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



스마트폰 보급률(%)



주: 휴대폰 소유자 대비 비율 (%)

5 한류(Korea wave)와 스포츠

- 한국 대중가요(K-POP)가 대표적 문화상품으로서 전세계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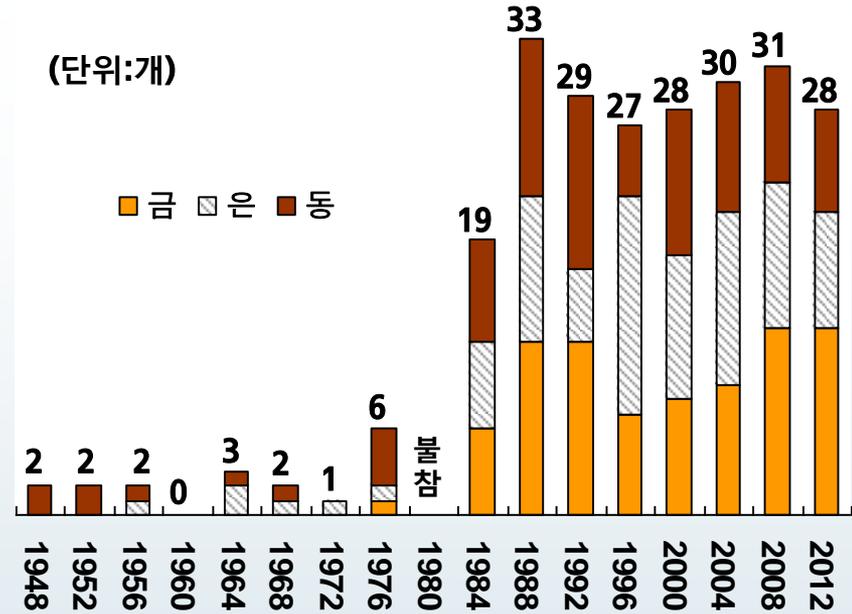
- ✓ Forbes : “세계를 휩쓸 20개 트렌드”
- ✓ 상품별: 드라마, 음악에서 영화, 게임으로 확대
- ✓ 지역: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 등으로 확산

- 독일 방송 Deutschlandradio (2013.3)
: “한류는 세계를 정복중”
- BBC(2013.8): “중동에 평화를 주는 K-POP”
- 프랑스 TV TF1(2013.3)
: “한류 현상은 모든 젊은 세대에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
- 후진타오(2005)
: “바쁜 일정으로 대장금 전편을 못 본 것이 부끄럽다(shame)”
- Global Soft Power Ranking(Monocle)
: “K-POP과 한류외교로 상승”
✓ 19위(10) → 11위(12)

- 고성장에 따른 경제력, 체육 인프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

역대 하계 올림픽 성적 (메달 수)

(단위:개)



- 1948년 런던올림픽 첫 출전 이후 1976년 몬트리올에서 최초로 금메달 획득 (레슬링)
- 1988년 서울올림픽 4위,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2012년 런던올림픽 5위 등

3. 기적의 원동력



세계 10위권대의 선진 경제국가로 부상

<참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민족의 DNA

경쟁·시장친화적 문화

- 경쟁에 친숙한 문화
- 시장에 대한 인정과 기대

자립심이 충만한 사회 분위기

- 개인을 기초로 한 강한 자부심 : 天孫
- 척박한 자연환경에서의 생존 본능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던
기마민족·초원제국 전사들의
DNA를 공유

강한 성취동기와 의지

- '하면 된다'는 성취 문화 ('신바람')
-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

대외지향성

- 전 세계가 한국인의 활동무대
- 세계 최고의 해외유학·국제이동인구 비율

Ⅱ 유라시아 기마민족사 - 노마드의 DNA

Ⅱ-1. 기마유목민족의 활동

1. 유라시아 대초원 지역
2. 대초원에서 살아가는 기마유목민
3. 기마유목군단의 등장
4. 최초의 기마유목군단 : 스키타이(Scythian)

1. 유라시아 대초원지역

■ 유라시아 스텝 대초원지역

- 아시아 고원 지역 (천산 · 알타이산맥, 파미르) 외는 동서 8,000km가 대초원, 사막

※ 헝가리 ~ 우크라이나 ~ 남부러시아 ~ 중앙아시아 ~ 만주

서부초원	동부초원
알타이산맥~대흥령산맥 (남북600~800km)	다뉴브강~흑해~볼가강~알타이산맥 (남북320~950km)

■ 유라시아 대초원은 자연조건이 매우 열악

- 비가 적어 농경이 어렵고, 뜨거운 여름(+40℃)과
혹한의 겨울(-40℃)이 교차

➔ 목초지를 찾아 가축과 함께 취락지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영위

■ 스텝역사의 중심지 몽골고원

- (동)대흥안령산맥,(서)알타이산맥,(남)고비사막,
(북)바이칼호수 - 272만km² , 해발평균 1.5km





2. 대초원에서 살아가는 기마유목민

- 유라시아 대초원의 엄격한 자연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 ① 용감하고 ② 유능한 독특한 인간유형을 형성 -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 - 사회전체가 풍부한 자립심을 가지는 가치관
- 대초원의 유목생활에서 말은 교통과 생활의 주된 수단으로 기마유목민이 등장
 - ➔ 이동은 물론 모든 생활이 말을 기초로 이루어짐
 - ➔ 몽골의 말은 하루 200km를 주파
- 동·서·중앙아시아 대초원 및 유럽을 무대로 활약
 - ➔ 유목민은 문자가 없어 역사기록 취약 (8C초 돌궐문자가 최초)
 - ➔ 야만, 비문명, 파괴자 등으로 역사가 왜곡



3. 기마군단의 등장

■ 기마유목민은 말·활을 무기로 기마군단을 출현시킴

→ BC 800년경 출현 → 2500년간 세계사를 주도

- 총·화기 등장 전 가장 강하고 효율적 기동군단

• 조랑말 · 나무안장 · 등자

• 복합곡궁 · 삼각철화살

• 전투식량 · 전투갑옷

→ 막강한 전투력

- 대초원을 무대로 가공할 기동력으로 전세를 장악

- 현실적인 전진 · 후퇴 전술 구사로 전투력을 극대화

※ 1126년, 宋 보병 2,000명이 金기병 17기에 대패

※ 1637년, 조선보병 4만이 靑기병 300기에 대패

Force = Mass X Acceleration

1687, I.Newton 제2법칙



말안장



등자



활



화살촉

4. 최초의 기마군단 : 스키타이(Scythian) : BC 7 ~ BC 2 세기

- 중앙아시아에는 BC12세기 무렵 유목민 활동시작, BC9세기 말의 기동력 활용한 전투집단 등장
- 아시아 유목민이 BC 8-7세기 볼가강에 진출, 우크라이나 · 중앙아시아에 강대한 스키타이 건설
- BC 674 메데 정복
- BC 514 페르시아 다리우스 70만 대군 제압
- BC 4세기 전성기, BC 3세기경 사르마트에 멸망

< 헤로도토스의 Histories가 기록 >

“스키타이는 아시아 유목민 “

“그들이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다.”

“도시도 성채도 갖지 않고 어디를 가나 집을 가지고 다니며 모두 말 위에서 활을 쏘 줄 알았다.”

< 우리와의관계 >

- 대규모 고분 · 金文化 · 암각화

- 청동무기 · 마구, 동물장식

※ 스키타이 - 흉노 - 신라의 유전자 친연성



◆ 스키타이 기마유목문화의 성격

- 최초로 초원을 지배한 기마유목민
- 이동성·집단성·전투력이 특징인 군사집단
- 스키타이의 생활풍습 · 전술·전법은 흉노·선비·돌궐·몽골 등과 공통점



Ⅱ 유라시아 기마민족사 - 노마드의 DNA

Ⅱ-2. 기마유목민족이 건설한 국가

흉노

여진

선비

몽골

돌궐

1. 흉노(Hunnu Empire) : BC 209~AD 155

- 흉노는 스키타이를 잇는 기마유목민 국가로 BC 3세기 후반에 몽골고원을 통일
 - ※ 전국시대에 몽골지역의 흉노는 “호(胡)”, 만주지역 민족은 “동호(東胡)” 로 지칭
- 흉노는 연, 진(시황제), 한(고조 · 무제)등과 격돌, 대제국 건설(620만km²)
 - **두만** 선우가 부족을 통합하고 진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
 - **목특** 선우가 즉위(BC 209)하여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완성
 - ※ 진시황은 흉노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자 장성을 건축(몽념)
- 한과의 전쟁중에 질지의 서흉노(BC 56), 호한야의 동흉노(BC 58)로 분열
 - 서흉노는 멸망 (BC36), - 동흉노는 남흉노 · 북흉노로 분열 (AD 48)
 - 남흉노는 중국에 이주 · 동화, 북흉노는 후한 · 선비에 멸망(AD 151)

- ◆ 흉노는 고조선에서 분리, 고조선에 붙었다 배반하기를 되풀이. 목특이 전흉노의 기병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기습공격. 조선이 미약해지고, 속민 선비도 선비산으로 도주(조선상고사)
- ◆ 흉노 시조는 고조선인 (민족정사)
- ◆ “한무제가 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해 흉노의 왼쪽 팔을 끊다” (한서)



<터키 역사교과서의 흉노제국과 훈제국>



<참고> 동서문명의 교역로 : 실크로드

- 고대로부터 유라시아를 연결하여 인간의 삶과 문명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 교역로

① 초원길(초원실크로드) : 유라시아대륙 북쪽 초원지대에서 유목민이 이용

- 동유럽 - 카스피해북안 - 카자흐초원 - 준가얼분지 - 몽골초원 - 만주 -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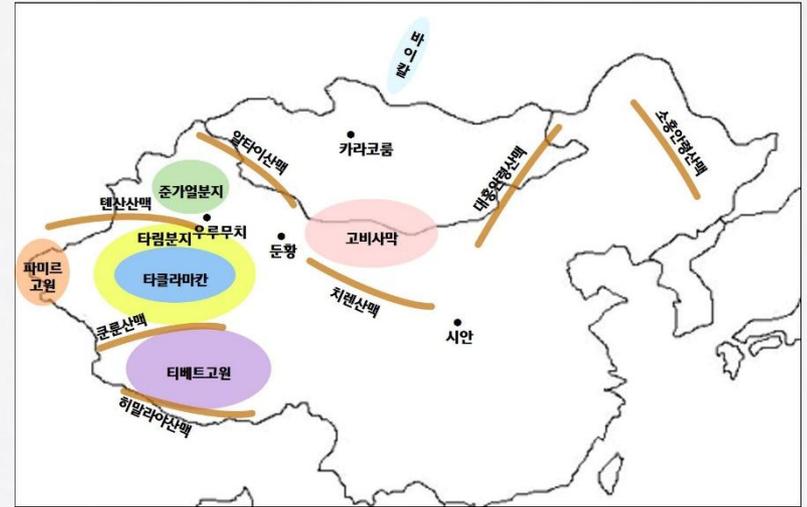
② 오아시스길 : 중세까지 동서 육상교역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한무제가 개척

※ 장건, 고선지

- 천산북로 : 둔황 - 텐산산맥 북쪽
- 천산남로 : 둔황 - 텐산산맥 남쪽
- 서역남로 : 둔황 - 타클라마칸사막 남쪽

③ 바닷길(바다실크로드) :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의 발달로 개척한 중세 이후 가장 활발한 교역로

- 아테네 - 홍해 - 인도양 - 동남아 - 중국



<실크로드 중국 지형>



1(흉노)-1. 훈족(The Hun) : AD 375~455

- 흉노 멸망 후 잔존 세력이 서진하여 유럽에 훈제국을 건설 (AD375)
 - 역사에서 사라진 흉노는 약 4백년이 지난 4세기말 로마인에 혜성같이 등장
 - ※ 나무안장, 등자, 복합곡궁, 삼각철화살 등 신무기로 무장한 공포의 기마군단
 - AD 374경 **발라미르**가 유럽을 파죽지세로 공격 (볼가 · 돈강을 건너 동고트 점령, 드네프르를 건너 서고트 축출)
 - AD 400경 **울딘**이 유럽을 초토화 → 고트족이 헝가리 · 이탈리아 등지로 피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초래)
- AD 434 아틸라(Attila)가 왕으로 등극
 - AD 441 동로마제국과 전쟁 선포 → 라인강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375만km²)
 - AD 451 서로마제국과 전쟁 선포 → 갈리아 공략, 라인강 건너 메츠 점령
 - AD 452 이탈리아 침공 라인강~발트해~카스피해~도나우강~지중해를 잇는 유럽 최강국가 건설
- AD 453 아틸라사후(※Ildico) 급격히 쇠퇴

◆ ZDF TV 다큐멘터리

비밀스런 아시아의 초기 역사에서 훈족의 실제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세인의 주목을 끈 고고학적 발굴물이 그들의 원래 고향은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 한국의 작은 도시 경주 근교의 묘에서 부장품으로 점토상이 발굴되었다. 말을 탄 사람 뒤에 흔치 않게 생긴 솔이 실려 있는 기마상. 이 솔은 똑바로 세워 말 탄 사람의 등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그릇은 지금까지 이곳과 훈족의 이동경로에서만 발견되었다.

◆ 동이족의 편두풍습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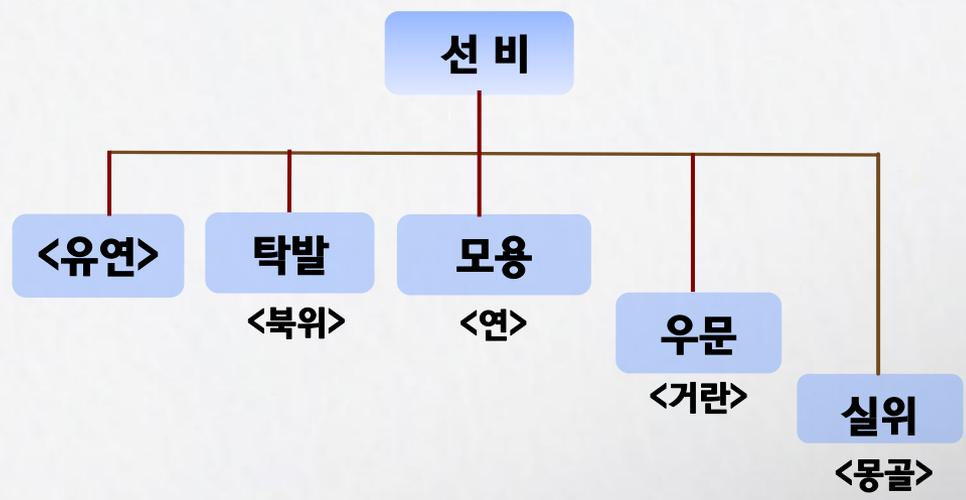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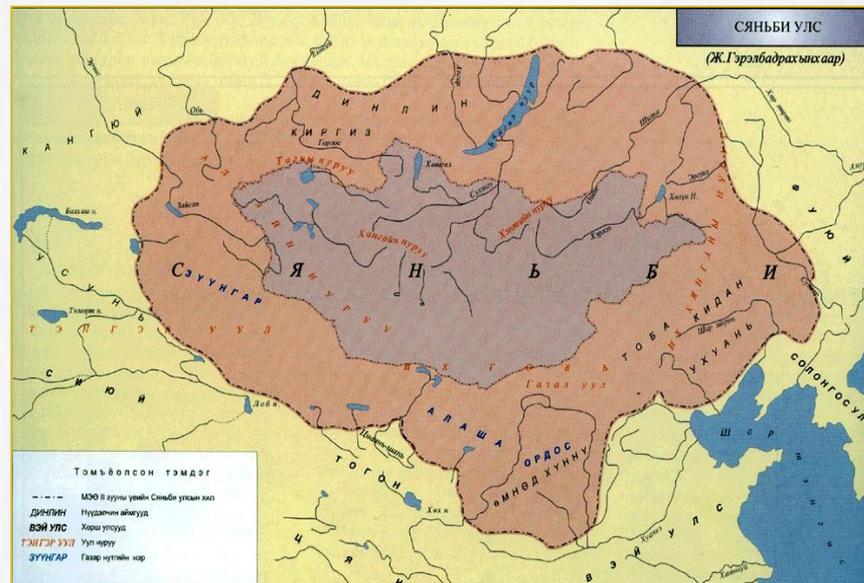


2. 선비(Xianbei Empire) : AD 1~3세기

- 동호일파로 대흥안령(=선비산)에서 목축, 수렵생활을 하다 1세기 초 흉노의 지배를 받음
 - 흉노분열 후 몽골지역을 점령
- AD 156 「단석괴」 시대 대제국 건설
 - 몽골고원-바이칼호-만주-오르도스 일대를 장악(490만km²), 후한침략
- 단석괴 사후 분열 → 내몽골에 할거
 - 모용부 (대릉하유역) → 연(5호16국)
 - 우문부 (시라무렌강유역) → 거란
 - 단부 (우문부 남쪽) → 모용부
 - 탁발부 (내몽골호화호특) → 북위
- 진 통일 후 혼란기에 「흉노·비·갈·저·강」 5개 민족이 「5호16국시대」 전개 (AD 304~439)

◆ 「후한서」는 선비를 동호(고조선 별칭)의 후예라 기록

◆ 수나라 양견, 당고조 이연은 선비족 출신



2(선비)-1.유연, 전·후연, 북위

<유연(330~555)>

- 유목민 최초로 『카간』(可汗)칭호 사용
- AD 330 **차로고이**가 국가기반 건설
- **사륜** (402~410)이 강성한 국가건설
 - **고구려 등과 함께 북위를 포위·대립**
- 돌궐 등의 공격으로 멸망

<전연(337~370), 후연(384~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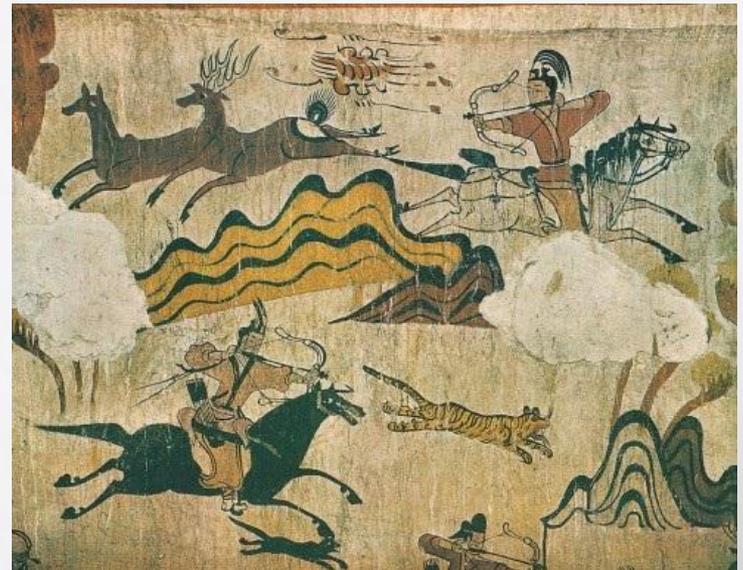
- 선비족 모용부가 건국한 5호16국의 하나
 - **모용황은 고구려를 침공(342)**
- 전진에 멸망 후 모용수가 재건, 북위에 멸망

<북위(386~534)>

- AD 386 탁발규가 북위 건국
- AD 439 탁발도가 5호16국 시대를 종식, 화북을 통일하여 북위를 건국
 - **남북조시대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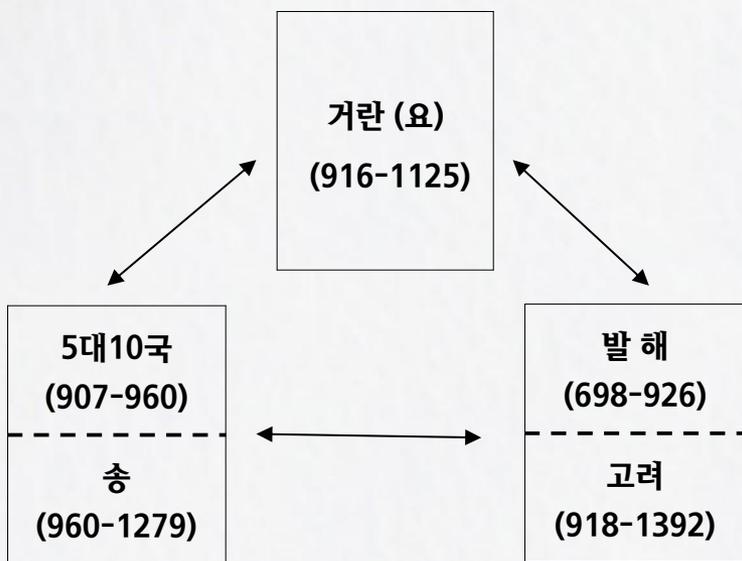
<선비족 무덤벽화 무사도, 조양>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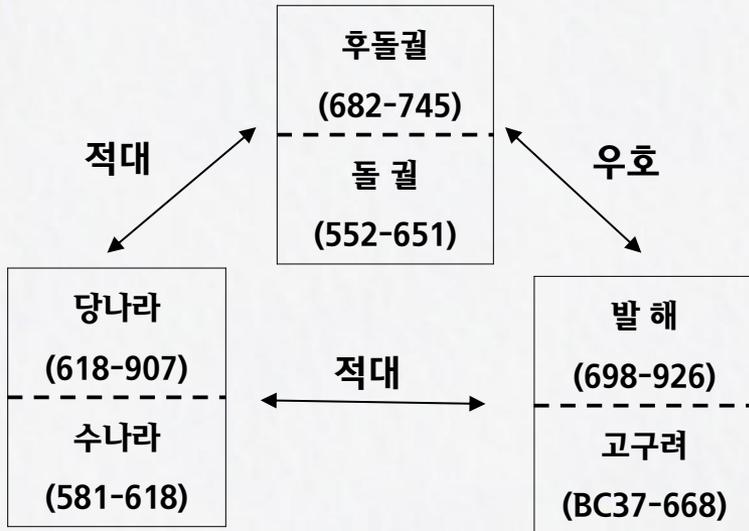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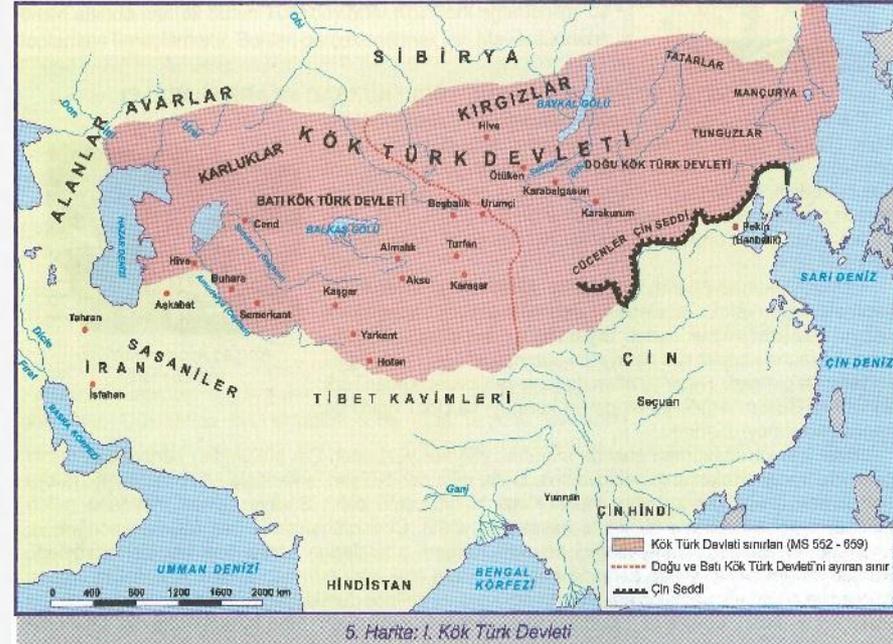
2(선비)-2.거란(Kidan State) : AD 916~1125

- 동호의 후손, 선비족의 한 그룹으로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발흥
- AD 916 **야율아보기**가 키타이국 출범
 - AD 926 발해국 멸망, AD 947 「대요국」
- AD 993~1018 고려 침입 (1~3차)
 - ※ 1차 침입시(993) 서희 : 소손녕의 담판
- AD 1125 여진족 금나라에 멸망



3. 돌궐(Turkic State) : AD 552~745

- 흉노 후 선비, 유연, 돌궐이 몽골지역 장악
- AD 552 「부민카간」이 「돌궐」 건국
 - 터키 건국 1400주년 기념제 : 1952년
 - 유라시아 동서·남북에 대제국 건설
 - 수·당과 대립, 동로마 제국과 교역
- AD 582 동(몽골고원)·서(중앙아시아) 돌궐 분열
 - AD 630·651년 당에 멸망 (당 : 1000만km²)
- AD 682 「쿠틀룩」이 재건 (1040만km²)
 - AD 720년경 「빌게카간」 때 최전성기
 - AD 745 위구르·당·티베트 협공으로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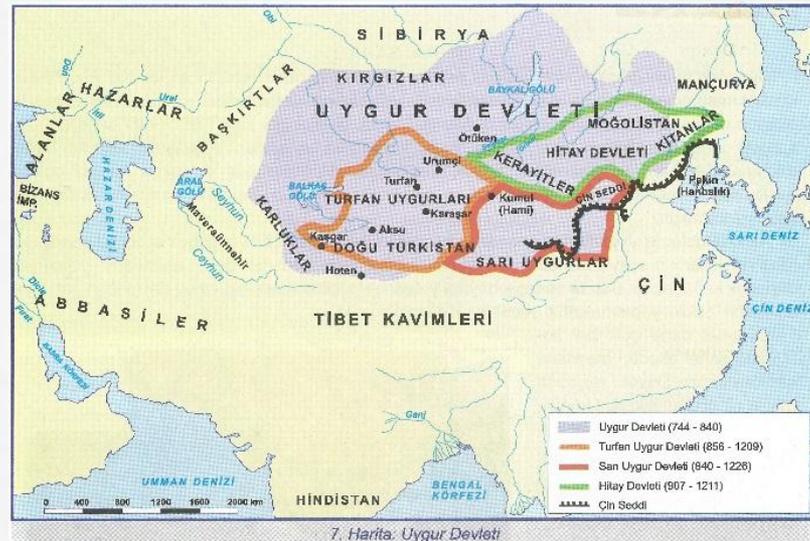


- ◆ 돌궐제국의 성격
 - 기마유목문화의 완성기
 - 유목민족 처음으로 문자 기록 (돌궐문자)
 - 세계사상 처음 유라시아에 대제국 건설
 - 서돌궐이 서진하여 셀주크제국(1037)
 - 오스만제국(1299) 건설 → 터키가 계승



3(돌궐)-1. 위구르(Uyghur State) : AD 745~840

- 몽골고원 · 중앙아시아 일대의 투르크계 위구르인이 세운 투르크계 국가
 - ※ 철륵 (鐵勒:수 · 당시대 투르크계 연맹체) 에서 돌궐 · 위구르 · 설연타등이 유래
- 돌궐제국 혼란기에 몽골고원 지배권 확립
 - AD 745 돌궐 격파후 위구르제국 건설
 - AD 755 당나라 「안사의 난」 진압 후 동방세계 최강국으로 부상 (안록산 → 소그드 · 돌궐계 혼혈)
- ※ 만리장성 ~ 바이칼 ~ 흥안령산맥 ~ 천산산맥
 - AD 840 키르키즈에 멸망 후 간쑤 · 둔황 · 투르판 등에서 위구르계 국가 건설
-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구르인이 이동 · 진출
 - 동투르크스탄 : 신장웨이우얼자치구 (166만km², 위구르인 880만명 거주)
 - 서투르크스탄 :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465만km²)
- ※ 13세기 몽골제국시 위구르인이 고려 진출(회회인)
 - 회교, 회회아비(쌍화점), 처용가



◆ 위구르 제국의 성격

- 동서문화와 유목·농경문화를 융합한 국가
- 위구르의 이동은 유목민이 중앙아시아 오아시스지대에 이주·정착하는 계기
- 7~8세기 이후 오아시스의 상업 장악, 성곽도시 건설, 이슬람화·투르크화 진전
- 11세기에 투르크·이슬람 시대의 개막
- 1760년대 청(건륭제)에 복속

3(돌궐)-2.셀주크 투르크(Seljug Turk) : AD 1037~1194

- AD960년경 **셀주크** 지휘로 투르크부족이 실크로드를 따라 부하라 · 사마르칸트로 이주
 - 1037 **토그릴**이 셀주크투르크 건국
 - 1043 이란, 1055 바그다드 점령
 - 1071 비잔티움 격파(만지케르트전투)→ **아나톨리아 점령**
 - 1087 압바스 왕조 칼리프로부터 “**동·서방 술탄**” 칭호 획득
 - 1090년경 전성기: 알타이산맥 ~ 중앙아시아 ~ 이란 ~ 아라비아반도 ~ **아나톨리아** ~ 이집트
 - 1097~1192 1~3차 십자군 전쟁
 - 1194 마지막 술탄 전사 후 제국 분할 소멸
 - 1077 셀주크투르크 일족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룸셀주크**를 건국(수도 : 콘야)
 - 1176 비잔티움제국 격파 → **아나톨리아 완전 지배**
 - 1230년경 전성기 → 1243 몽골에 복속, 1308 멸망
- ※ 최대영토 : 470만km²



◆ 셀주크 투르크의 성격

- 투르크계 기마 유목민 세력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일대를 지배한 수니파 무슬림 왕조
- ※ 투르크족은 8C 압바스왕조의 탈라스 전투 승리 후 이슬람 세력하에 들어가 셀주크시대에 이르러 이슬람화
- 투르크 왕이 술탄이 됨

3(돌궐)-3.오스만 투르크 제국(Osman Turk Empire) : AD 1299~1922

- 1299 룸셀주크 세력약화 후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Osman 1세**가 오스만공국 건국
 - 1402 티무르군에 패배후 50년 침체 (앙카라전투)
 - 1453 동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로 천도
 - 1517 메카 점령 후 칼리프 지위 획득(술탄칼리프)
 - 16C 술탄이만 1세, 제국을 완성
 - 1571 레판토해전으로 지중해 주도권 상실
 - 1683 제2차 빈 포위 실패 후 러시아 · 오스트리아의 압박 → 헝가리, 우크라이나 상실
 - 19C 발칸반도, 이집트, 아랍지역 상실
- ※ 오스만제국 최대영토 : 560만km²
- 1923 터키공화국으로 전환
 - 바이칼 부근에서 이주를 시작한 투르크계 유목민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진출
 - 셀주크 제국을 계승한 기마유목민족국가
 - 몽골초원에서 서진을 계속하여 다민족 · 다종교 국가로 확장되어 비잔틴 · 이슬람문화를 융합



4. 몽골제국(Mongol Empire) : AD 1206~1368

- 거란 멸망(1125) 후 몽골고원은 5개집단이 분할

- 나이만, 케레이트, 메르키트, 타타르, 몽골
- 1162, 몽골족의 테무친이 부족 통합

- 1206 쿠릴타이에서 대몽골제국이 출범하고 `칭키즈칸` 칭호 부여

→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 건설**

- 1127 칭키즈칸 사후 우구데이, 구유크, 몽케, 쿠빌라이가 승계

- 몽골의 고려 침공(1231~1270)

- 삼별초포함시 42년 항쟁

- 쿠빌라이 사후 전쟁지속 → 혼란

→ 내란 → 한족반란 → 명에 멸망(1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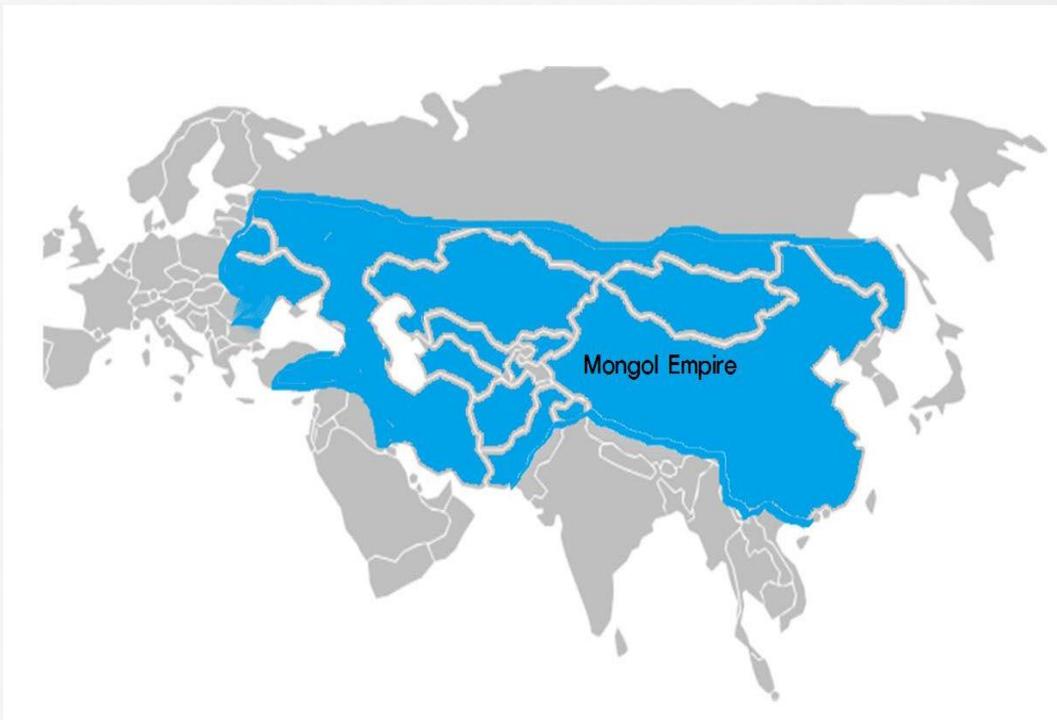
※ 최대영토 : 3,320만km²

오고타이 한국 → 원제국

차카타이 한국 → 티무르 제국

킵차크 한국 → 러시아

일한국 → 티무르 제국



◆ 몽골제국의 성격

- 기마군단의 가공할 전투력과 전술 (군단·운용·전투장비·전투력·병참·전술·전략·역참 등)로 단기간에 유라시아국가를 통합하여 세계제국 건설
- 쿠빌라이 경제정책은 자본주의·국제통상의 모델



남송
(1127~1279)

명
(1368~1661)

금
(1115~1234)

원
(1206~1368)

고려
(918~1392)

조선
(1392~1910)

헤이안시대
(794~1185)

가마쿠라시대
(1185~1333)

무로마치시대
(1336~1573)

에도시대
(1603~1863)



<헨티 : 다달솜>



<헨티주도 : 온드르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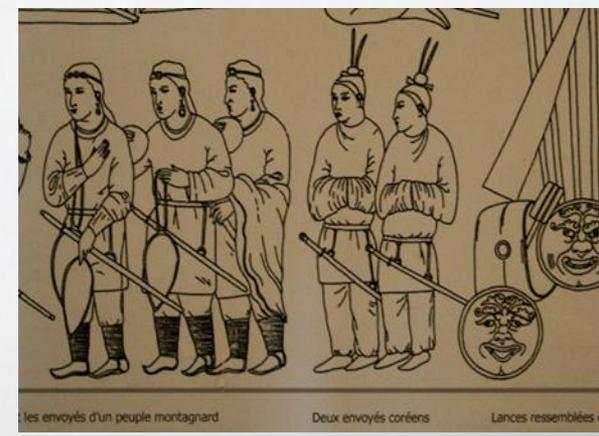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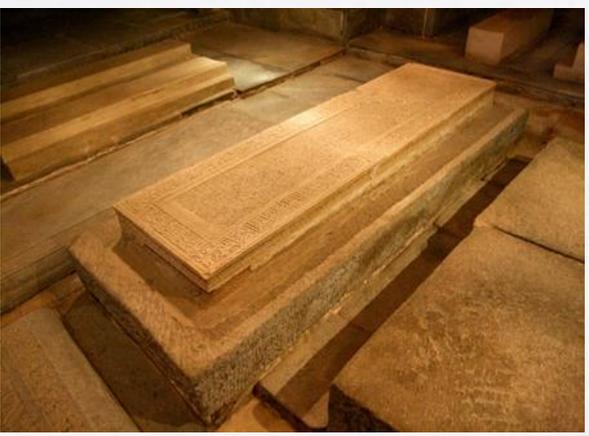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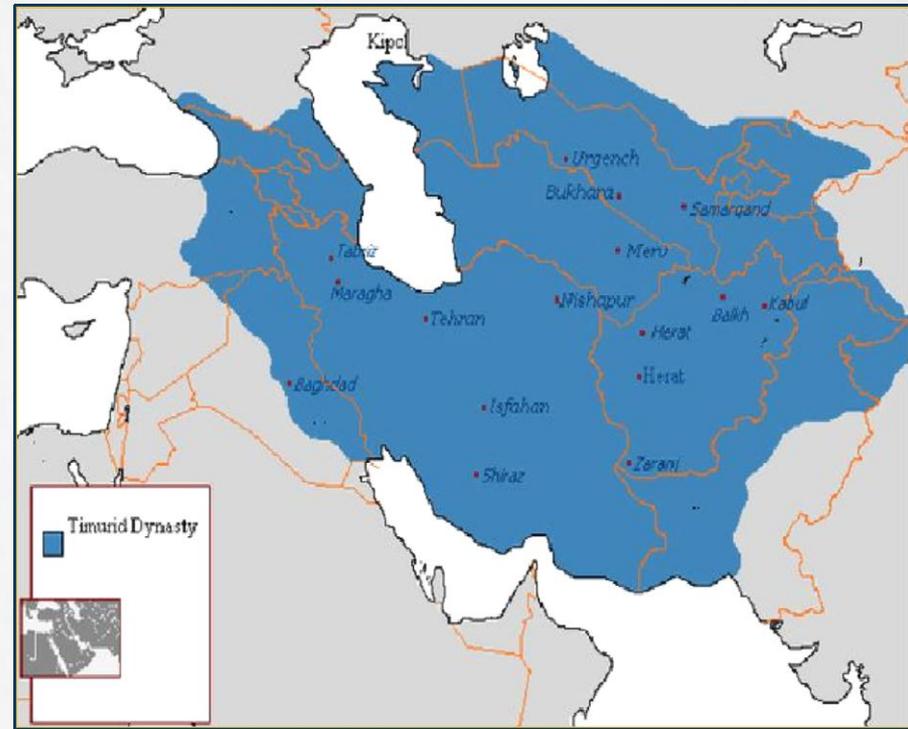


<델리운 불닥>

4(몽골)-1.티무르 제국(Timurid Empire) : AD 1370~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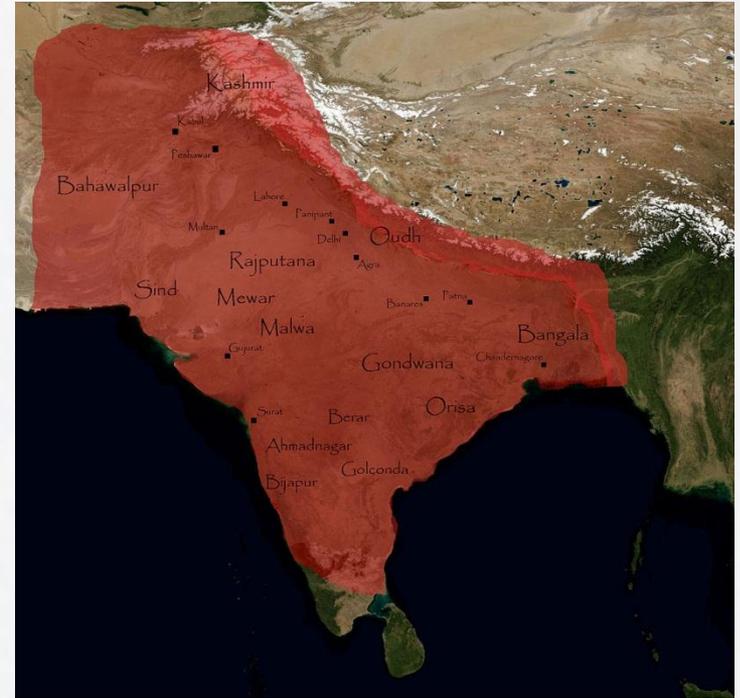
- 차카타이칸국의 **Timur**가 유목민 군사력과 오아시스 정주민의 경제력을 통합, 거대한 제국을 형성 (몽골재건)
- 중앙아시아에 근거한 최대의 「투르크 이슬람제국」
 - 1371 호레즘, 1393 바그다드, 1398 델리, 1402 아나톨리아 정복(앙카라전투 → 유럽구원)
 - 중앙아시아 · 이란 ·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과 북부인도 · 아나톨리아 지역 등 지배
 - 1402 사마르칸트로 천도 → 튀르크 · 몽골 유목전통을 보전하면서 이슬람의 문학 · 예술, 고도의 문화를 수용
 - 1506년 이후 티무르 제국은 분할

※ 최대영토 : 380만km²



4(몽골)-2.무굴제국(Mughul Empire) : AD 1526~1857

- 티무르제국 멸망후 5대손 「**바부르**」가 북인도에 진출
 - 1526 **바부르**가 18만 술탄군대를 격파하고 무굴제국 건국
 - 3대 「**악바르**」는 북인도전역, 북서부편잡, 인더스하류, 데칸지역,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대제국 건설
 - 5대 「**샤자한**」은 올드델리, 레드포트, 타지마할 등 건설
 - 6대 「**아우랑제브**」는 1687년 데칸 완전정복(370만km²)
→ 힌두교도 탄압등으로 제국이 분열되고 쇠퇴하기 시작
- 15세기말 이후 포르투갈 · 영국 · 네덜란드 · 프랑스등 유럽침투가 이어지고 17세기 이후 영국의 영향력이 확대
 - 1857 세포이항쟁 진압과정에서 무굴제국은 멸망



5. 여진

5(여진)-1. 金 (Jin Dynasty) : AD 1115~1234

- 여진족 : 송화강유역에서 부상한 퉁구스계
 - 숙신 (肅愼: 춘추전국) → 읍루 (挹婁: 한) → 물길 (勿吉: 남북조)
 - 말갈 (靺鞨: 수·당) → 여진(女眞: 송·명) → 만주족(청)
 - 발해멸망후 그 지역은 여진(여진족)으로 지칭
 - 여진은 10세기 초 이후 거란(요)이 지배
- 1115년, 완안부 **아골타**가 흑수말갈을 통합, 金건국
 - 1125, 송과 연합하여 요나라 멸망
 - 1127, 송을 강남으로 축출(남송) → 신하국
 - 1153, 상경회령부 → 연경으로 천도(중원장악)
 - 1234, 몽골 · 남송연합군에 멸망



◆ 여진족과 한민족

- 金史 : 금의시조 '함보'로 고려(신라)에서 왔다
- 金志大金國志 등 : 초기 여진추장은 신라인
- 고려사 : 금건국시조는 '함보'는 김준
 - ⇒ 신라종실이며 유민인 권행(본명:김행)의 둘째아들 김함보(김준)이 완안부 추장이 되어 흑수말갈까지 통합하고 발해유민이 가세하여 金건국

◆ 한국사와 금사

- 1900년대에도 김교현(신단민사), 신태윤(배달민족정사)등에서 금사를 한국사에 포함
- 권덕규(조선유기 · 조선사)에서는 금 · 청이 고조선의 후예로 기술
- 계림(신라) = 길림(만주원류고)

5. 여진

5(여진)-2. 後金 (Qing Dynasty) : AD 1599~1912

- 1616, 통구스계의 여진부족을 통합한 **누르하치** (청태조)가 ‘후금’ 건국 (홍경에 도움)
- 1626, 홍타이지(청태종) 즉위 → ‘대청’
- 순치제(1643~1661)는 중국지배의 기초 확립
- 강희제(1661~1722)는 중국 영토를 통일
 - 1689 **네르친스크 조약**, 1712 **백두산 정계비**
- 옹정제(1722~1735)는 청나라 지배체제 확립
- 건륭제(1735~1795)는 최대영토를 지배
 - 이슬람 · 묘족 · 백련교도의 난 등 쇠퇴 시작
- 1911신해혁명, 1912년 선통제 퇴위



- ◆ 청나라와 한민족의 관계
 -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후예가 건설
 - 누르하치의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
 - 1627(정묘호란), 1636(병자호란) 2차례 조선 침입 → 삼전도의 굴욕



Ⅲ 한민족의 고대역사 - 사라진 역사

Ⅲ-1. 한민족의 기원과 요하문명

1. 한민족의 기원과 추정 이동 경로
2. 북방기마민족과 한민족
3. 요하문명 유적의 등장
4. 홍산문화
5. 하가점 하층문화
6. 중국의 역사공정



1. 한민족의 기원과 추정 이동 경로

■ 한민족의 추정기원 : 알타이산맥 남부 중앙아시아(천산산맥 천산일대)에서 바이칼을 거쳐 남하

◆ 몽골인종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시베리아 추운지방에 기원.

1) 북 몽골인

① 옛 시베리아족 : 축치 · 코리약 · 길리약 · 캄차달
(구 몽골인)

② 새 시베리아족 : 투르크 · 몽골 · 퉁구스(알타이)
(신 몽골인) 사모예드 · 위구르 · 핀(우랄)

2) 중앙 몽골인 : 중국인(화하족)

3) 남 몽골인 : 인도차이나 지역

※ 신채호

- 조선족이 최초 서쪽 파미르고원
이나 또는 몽고등지에서 광명의
본거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

※ 유 엠 부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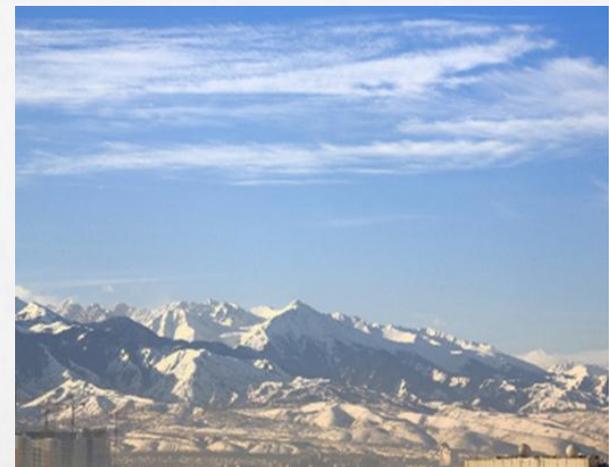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알타이계
종족인 예와 맥이 이주하여 조
선 주민의 토대를 이룸



<바이칼호 : 러시아 이르쿠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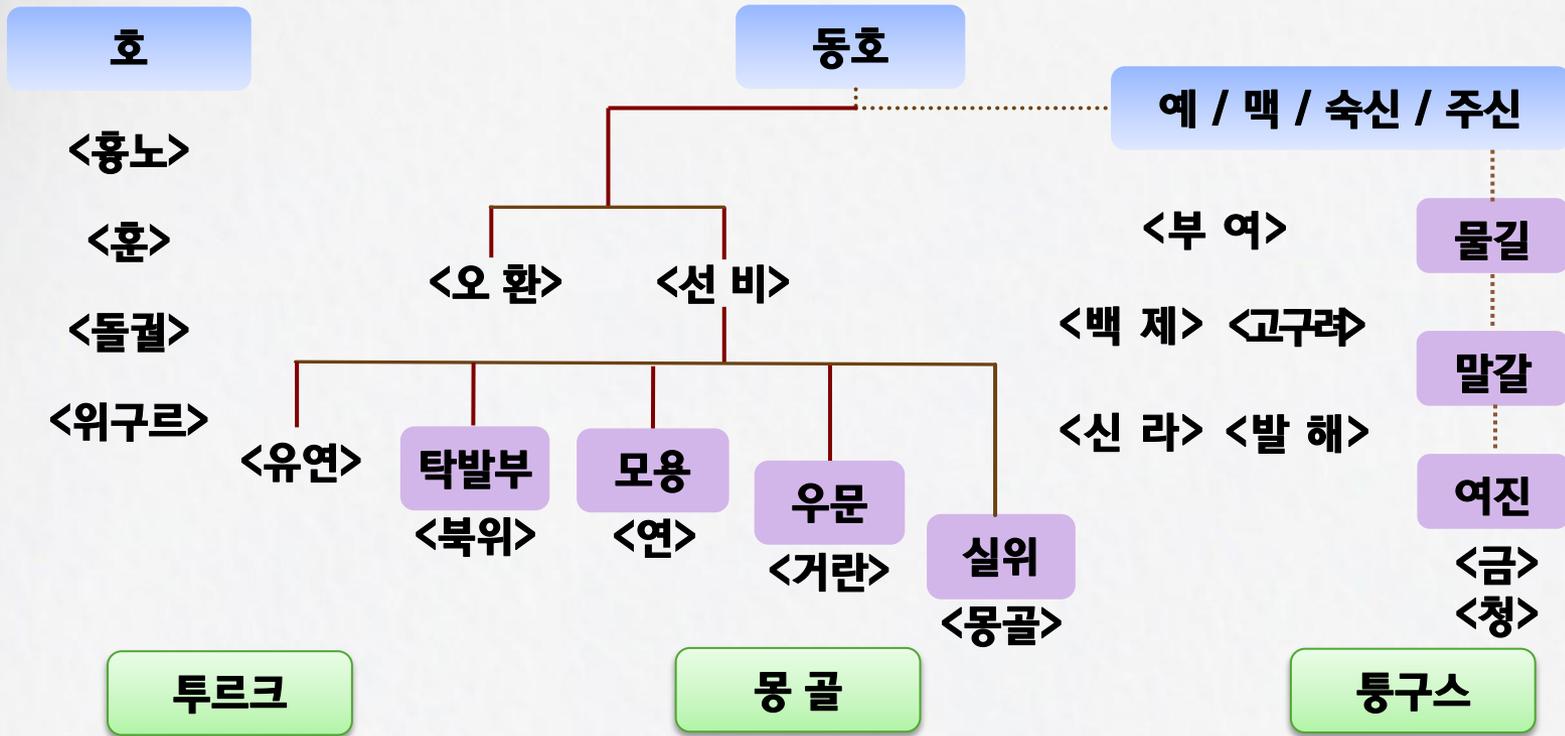


<천산 · 천지 : 중국 우루무치 동북>



<천산 : 카자흐스탄 알마티>

2. 북방기마민족과 한민족



<조선상고사>

- 흥노 · 선비 · 몽골은 아(我)에서 분리..., 여진 · 선비 · 몽고 · 흥노 등은 본래 아(我)의 동족이었다. 흥노는 조선의 속민이었다. (조선상고사)
- 우랄어족은 조선족 · 흥노족 등
 - 조선족은 조선 · 선비 · 여진 · 몽고 · 퉁구스 등의 족이 됨.
 - 흥노족은 돌궐 · 헝가리 · 터키 · 핀란드 등의 족이 됨.

3. 요하문명 유적의 등장

- ◆ 소하서 문화 (BC 7000~6500): 신석기
 - 동북 아시아 최고의 문화 유적
- ◆ 홍릉와 문화 (BC 6000~5700): 신석기
 - 최고의 옥, 빗살무늬 토기
- ◆ 사해 문화 (BC 5600~): 신석기
- ◆ 부하구 문화 (BC5200~5000): 신석기
 - 최고의 골복 발견
- ◆ 조보구 문화 (BC 5000~4400) : 신석기
 - 빗살무늬토기, 채도
- ◆ 홍산 문화(BC 4500~3000): 동석 병용
- ◆ 소하연 문화 (BC 3000~2000): 동석 병용
- ◆ 하가점 하층 문화 (BC 2400~1500): 청동기

요하문명과 한민족

- 1) 빗살무늬 토기
 - 홍릉와 문화 이후 모든 요하문명에서 발견
 -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만 발굴되며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 유물
- 2) 옥기
 - 홍릉와 문화 초기 옥귀걸이는 한반도 옥기 유적과 유사(고성 문암리 신석기 유적)
 - 요하문명의 한반도 진출을 입증
- 3) 골복문화
 - 상나라를 건설한 동이 족이 한반도까지 전파
- 4) 돌무지무덤(↔한족의 토갱묘)
 - 우하량 돌무지 무덤은 만주와 한반도 고대 무덤과 일치

※ 메소포타미아 문명 : BC 5900 ~ , 에게문명 : BC 3600 ~ , 인더스문명 : BC 3300 ~

※ 산동지역 : 용산문화 (BC 2800 ~ BC 2000)

<참고> 古代 동북아 지배 세력 : 동이족

- 중국 통일(한제국)전 황하주변에서 동이족과 화하족이 동서로 대립
 - ⇒ 통일 후 중국내 동이족은 중국세력에 포함, 이후 만주, 한반도, 왜열도 등에 거주하는 민족
- ※ 동이족 활동 범위 (서양지: 중국사전사화)
 - 산둥성, 하북성 발해연안, 하남성 서북, 안휘성 중북부, 호북성 동쪽, 요동반도, 한반도
- 당가홍(唐嘉弘)의 동이고국사론(東夷古國史論)
 - 동이의 역사는 근원이 아득할 뿐 아니라 명맥이 유구함
 - 그들은 중국문명에 비범한 공헌을 하였고, 황하문명의 주요한 근원 중 하나
 - 아메리카 대륙과, 남태평양제도의 개발에도 지울 수 없는 공적을 남김
- ※ 편두풍습은 메소포타미아, 홍산, 만주,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
- 부사년(傅斯年)의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
 - 중국 고대문명을 남북간 구조에서 동서간 대립으로 인식
 - ⇒ 하·주 중심의 역사에서 동방의 이(夷)의 존재와 역할을 제기



<테오티우칸>



<치첸이사>



<마추픽추>

4. 홍산문화 (BC4500~3000) : 세계를 놀라게 한 대발견

- 1920년대 이후 내몽고, 요령성 접경의 홍산지역에서 신석기유적을 발견(BC4500~3000)
 - ※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 최고 BC 7000까지 소급되는 신석기 문화 → 중국은 「요하문명」으로 명명
- 1983~85년 홍산지역 「우하량」에서 BC3500~3000년의 대규모 유물 발굴 : 홍산만기문화
 - 「대형제단」, 「여신묘」, 「적석총」, 「옥기묘」 등
 - 초기국가 단계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회로의 진입 (청동기시대야 국가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가설을 파기)
 - ①계급이 완전 분화, ②사회적 분업, ③초기 문명 유물
 - 세계를 놀라게 한 대발견, 문명사를 다시 쓰는 전기 (4대 문명권보다 1~2천년 앞선 고대국가 존재)

※ 중국의 앙소 · 하모도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권

- 고조선 · 부여 · 선비 · 거란 · 말갈 등 동이족 무대

→ 우하량 유역 홍산문화는 「배달국」 존재와 관련

※ 삼성기 등의 기록상 배달국 : BC3897~2333(1565년)

※ 이 지역에서 남하한 동이는 상나라를 건국해서 중원을 통일하고 (BC1600) 주나라에 의해 다시 동북지역으로 이동 (BC1046이후)



5. 하가점 하층문화 (BC2400~1500)

- 1960년 홍산지역 적봉근교에서 대규모 유적층이 발견

- 홍산문화와 앞뒤로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계승
- 석성, 돌무덤, 제단, 청동기, 채색회도, 옥기 등
- 요서지역에서 중국 하나라와 대적하는 매우 강성한 국가의 결정적 증거

- 하가점 하층문화는 BC2400년경까지 추정



- BC 10세기 하가점 일대가 추워져 초원지역화하여 하가점 하층문화는 이동

- 낭하~대룡하 지역으로 이동 (비파형 동검)
- 하가점 지역은 고비사막의 황토가 퇴적 → 그 위 초원에서 하가점 상층문화 형성

➔ 하가점 하층문화(BC2400~1500)는 고조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 (윤내현, 이형구, 신형식, 복기대, 우실하, 심백강, 이종호)

- 상나라에 밀려 요동 서북한 지역에 조선건국 (BC.10C 「관자」의 고조선)(정형진)

6. 중국의 역사 공정

- 황하문명보다 빠른 홍산문화의 발굴 → 중원 중심론에 타격
 - 동이족의 홍산문화를 중국역사에 편입할 필요 → 다민족 역사관으로 전환 → 요하문명론
- 요하 문명론
 - 만주지역의 서쪽인 요서 지방과 요하 일대가 중국문명의 시발점
 - 요하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고대민족과 역사는 중국의 몫
 - 요하 일대에서 기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의 후예
 - 요하 일대를 황하문명보다 앞서는 요하문명으로 재정립

⇒ 단군·웅녀·주몽은 황제의 후예,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고대 한민족사는 중국사
- 하상주 단대공정 (1996~2000)
 - 하(BC2070~1600) · 상(BC1600~1046) · 주(1046~771) → 단군시대의 역사 복원
- 중화문명 탐원 공정 (2001~2006)
 - 요하 일대를 4대 문명보다 앞서는 새로운 문명권으로 부각 (요하문명론)
 - 중화문명의 기원을 향하 → 요하유역으로 → 환웅시대의 역사 복원
- 서남·서북·동북 공정 : - 중국의 분열 방지 대책

Ⅲ 한민족의 고대역사 - 사라진 역사

Ⅲ-2. 사라진 한민족 고대역사를 찾아서

1. 환국 (桓國)
2. 배달국 (倍達國)
3. 단군조선
4. 고조선의 분열과 부여시대



1. 환국 (桓國) : 동북아 문명의 발원

■ 환국에 대한 기록

- 삼국유사(일연), 약천집(남구만), 풍암집화(유광익), 수산집(이종휘)

◆ 삼성기 · 태백일사의 기록

- 환인시대 : BC7197~3897 (3301년)
- 천산(파내류산) 아래, 천해(바이칼호) 동쪽, 남북 5만리·동서 2만리 : 9환족의 12연방
- 비리, 양운, 구막한, 구다천, 일군, 우루, 객현한, 구모액, 매구여, 사납아, 선비, 수밀이
- 인류의 시원 문명

<7대 桓人>

- ①안파견 ②혁서 ③고시리 ④주우양 ⑤석제임
- ⑥구을리 ⑦지위리

※ 최남선의 불함문화권 : 환국



※ 환족이 동서로 분화

- 수메르(Sumer) : 동방고원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 흑발 황색인종, 교착어(BC5000~)
(환국에서 서방으로 진출 → 서양 문명의 기원)
- 배달 : 한국의 장자족이 동쪽으로 이동 [동이]

2. 배달국 (倍達國) : 한민족이 동북아에 세운 최초국가

■ 배달국(신시 · 환웅천왕)을 기록한 문헌

- 삼국유사(일연), 동국사략(유희령), 신증동국여지승람(이행), 약천집(남구만), 해동이객(홍만중), 규원사화(북애자), 수산집(이종휘), 동사강목(안정복) . . .

※ 중국역사에서는 동이(東夷)로 기록

■ 치우천황은 중원을 개척하여 「청구국」을 건설하고 황제에 탁록대전에서 대승(BC2600)

※ 관자(管子) : “치우는 금으로 병기를 만들었다.” 사기(史記) : “치우의 형제 81명은 동두철액이다.”

■ 우하량의 홍산문화(BC3500~3000)는 배달국의 유적 추정

◆ 삼성기 · 태백일사의 기록

- 배달국시대 : BC3897~2333(1565년)
- 신시를 수도로 흑수(흑룡강) ~ 백산(태백산, 백두산)에 건국
- 태호복희, 염제신농의 등장

<18대 환웅이 통치>

- | | | | | |
|--------|-------|-------|-----------|-------|
| ① 환웅천황 | ② 거불리 | ③ 우야고 | ④ 모사라 | ⑤ 태우의 |
| ⑥ 다의발 | ⑦ 거련 | ⑧ 안부련 | ⑨ 양운 | ⑩ 갈고 |
| ⑪ 거야발 | ⑫ 주무신 | ⑬ 사와라 | ⑭ 자오지(치우) | |
| ⑮ 치액특 | ⑯ 축다리 | ⑰ 혁다세 | ⑱ 거불단 | |



3. 단군조선 (고조선) : 응비하는 한민족국가

■ 단군조선 기록 : 삼국유사 BC 2308년, 동국통감·해동이적·동국역대총목 BC 2333년

※ 중국 사서의 고조선 : 사기·한서·산해경·관자...

■ 우리 주류 학계는 BC 2333년 고조선 건국을 인정하지 않음 (단군 → 신화)

- i) 청동기 시대에야 국가가 성립 가능
- ii) 청동기문명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파되었으므로 유럽·중국·시베리아보다 앞설 수 없음
- iii) 청동기시대는 만주 BC 15~13세기 한반도 BC 10세기 시작(비파형 동검)

⇒ 반론

- i) 청동기 시대 이전에도 국가가 성립
- ii) 청동기 문명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 - 와르세(덴) : 극동아시아 → 유럽으로 전파
- iii) 한반도 남단·중부·만주 지역 청동기는 BC2500년경 시작된 것으로 확인
 - Sarah Nelson(美) : 양수리 고인돌 유물이 BC 2665~2140년으로 추정
 - 하가점 하층문화 : BC2410년



단군에 비파그림 휘문(문신)을 새겨 넣은 양수리 고인돌, 지를 설명한 문이 그려져 있다.

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비파그림 유적은 다른 지역의 청동기 시대 농업 사회에서 보이는 태양 숭배와 같이 중요한 생산을 비는 제사 의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군과 고조선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국가가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들 중에서 강한 족장은 주변의 여러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점차 권력을 강화해 갔다.

족장 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기원전 2333). 단군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단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군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어떤 요소는 후대로 가면서 새로 첨가되기도 하였다.



단군 왕검

고대로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모든 신화에 공통되는 속성이기도 하다. 단군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 환웅 부족은 태백산의 신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었고, 이들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또, 용맥, 우사, 운사를 두어 바람, 비, 구름 등 농경에 관계되는 것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였다. 사유 재산의 성립과 계급의 분화에 따라 지배 계급은 농사와 행정 등 사회 생활을 주도하였다. 이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계급의 분화와 함께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통치 이념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게 하였다.

환웅 부족은 주위의 다른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해 갔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 부족과 연합하여 고조선을 형성하였으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연합에서 배제되었다.

단군은 계정 일치(郡政一致)의 지배자로, 고조선의 성장과 더불어 주변의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시켰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태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제로 하여 언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제사시설)은 만주와 북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하게 해 준다.

EBS 한국사수능(207p) → 고조선 부분 1p

1 한국주류사학계의 고조선

- ◆ 고조선은 BC10세기 경에 탄생하여 대체로 영토가 작았고 BC2세기 무렵에 국가(위만조선)가 성립
- ◆ BC108년 평양지역에서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설치. 낙랑군은 평양을 400년간 지배

■ 한국사 신론(이기백)의 고조선

-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위치
- 군 하나 정도를 지배하는 조그마한 정치적 사회
- 고조선 부족국가는 [BC 4세기경] 대동강과 요하유역 여러 부족국가와 연합, 하나의 커다란 연맹체를 형성
-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고 위씨조선을 건설 (BC 194)
- 漢은 위씨조선을 멸망시키고 (BC 108) 한사군을 설치

■ 한국통사(한우근, 1971)

- 「단군왕검」을 시조로 요하유역을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에 걸쳐 부족연맹세력 등장 [BC 4세기경]
- 한사군은 모두 고조선 토착사회의 기반위에 설치

■ 한국사통론(변태섭, 1998)

- 고조선은 BC 5~4세기경 초기국가 형태로 발전
- 낙랑군과 조선현은 대동강유역
- 단군왕검은 평양에 자리잡은 소국의 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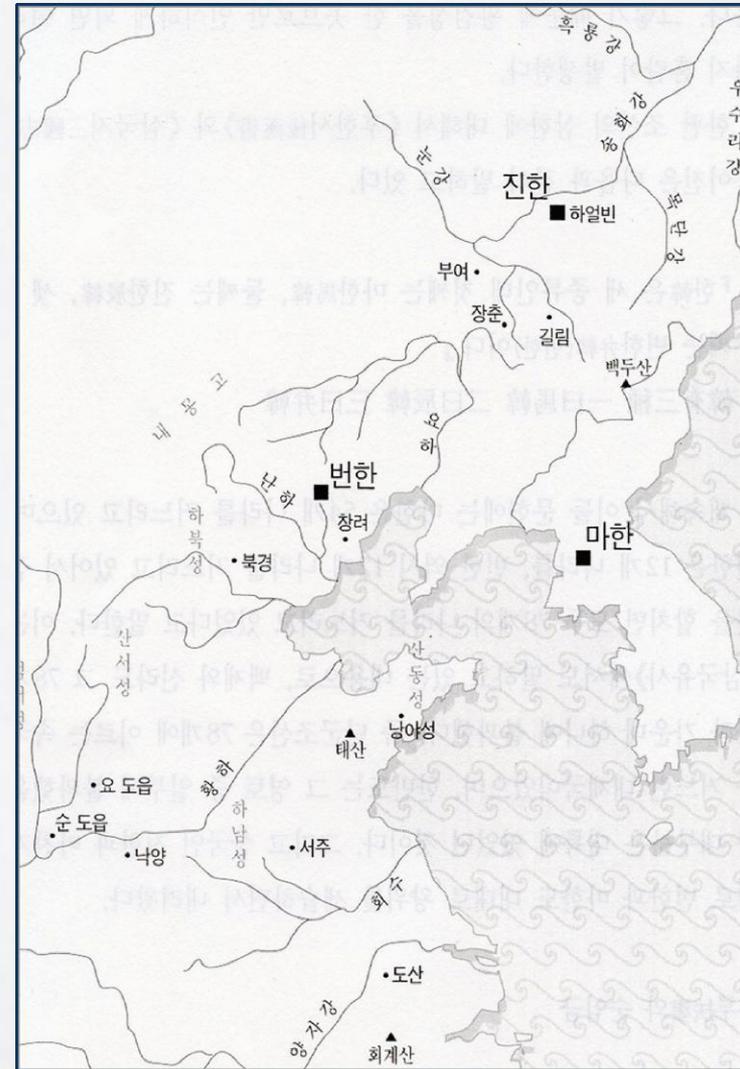
2 中國史의 기록으로 본 고조선

- 遼史(요하지역 동경에 대한 기록)
 - 동경 요양부는 본래 조선땅이다 (고조선의 존재와 영역에 관한 기록)
 - 조선은 40여대를 전해 내려왔다
 - 연나라사람 위만이 옛 공지에서 왕이 되었다 (위만의 땅이 요동지역)
 - 한무제가 조선을 평정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요동지역의 사건)
- 삼국지 - 연나라는 동호(고조선) 땅 2000여리를 취하고 만번한(滿潘汗)을 경계로 삼음.
 - 고조선 국경은 난하와 갈석
- 한서리지리 : 왕검성은 패수(대릉하)의 동쪽
- 管子 : 변조선과 제나라의 교역 언급
- 山海經 : 고조선이 연나라와 접경한다고 기록
- 史記 - 위만조선만 기록
 - 고조선 국경은 난하와 갈석
- 무경총요 : 「조선하」 (=패수, 고조선국경)는 북경서북쪽을 흐르는 「조하」
- 태평환우기 : 하북성 노릉현에 「조선성」이 있음.
- 진서 : 시라무렌강 유역의 선비족 모용황을 조선현의 '조선공'에 봉함.

3 조선상고사(단재신채호)가 밝히는 고조선 (1931)

- 대단군 왕검이 고구려 건국 이전 2천년전 하얼빈에서 조선개국
 - 상경(〇스라) : 하얼빈 → 「신한(辰韓)」이 직접 통치
 - 중경(아리티) : 개평 → 「불한(卞韓)」이 통치
 - 남경(펴라) : 평양 → 「말한(馬韓)」이 통치
- BC 10세기경부터 오륙백년간 대단군 조선의 전성기, 연·진·제와의 전쟁으로 쇠약
- 고조선은 BC 4세기경 삼조선으로 분리 (삼한)
 - 1) 신조선(=진조선) : 왕검자손(해씨)이 통치
 - 흉노와 대립(사기흉노전)
 - 신조선유민은 낙동강우편에 「진한부」로 유입
 - 2) 말조선(=막조선) : 한씨가 통치
 - 월지국으로 천도하여 「마한」으로 개칭 → 불조선왕 기준이 정복·통치
 - 3) 불조선(=번조선) : 기씨가 통치
 - 연과 대립, 위만의 반란으로 패망
 - 불조선 유민은 낙동강우편일부에 「변한부」로 유입
- 사기조선전 : 불조선 → 조선
- 사기흉노전 : 신조선 → 동호

<기록으로 본 고조선 도읍 중심지>



4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1963)

■ 고조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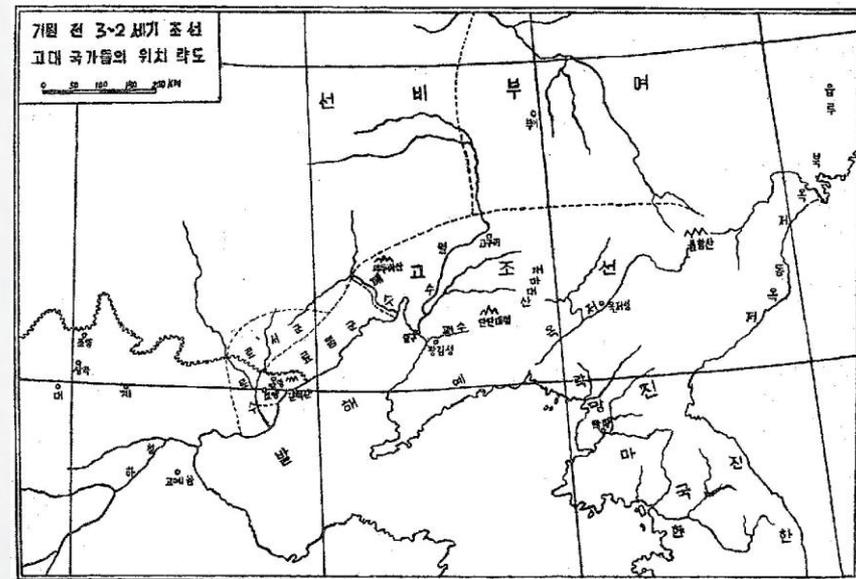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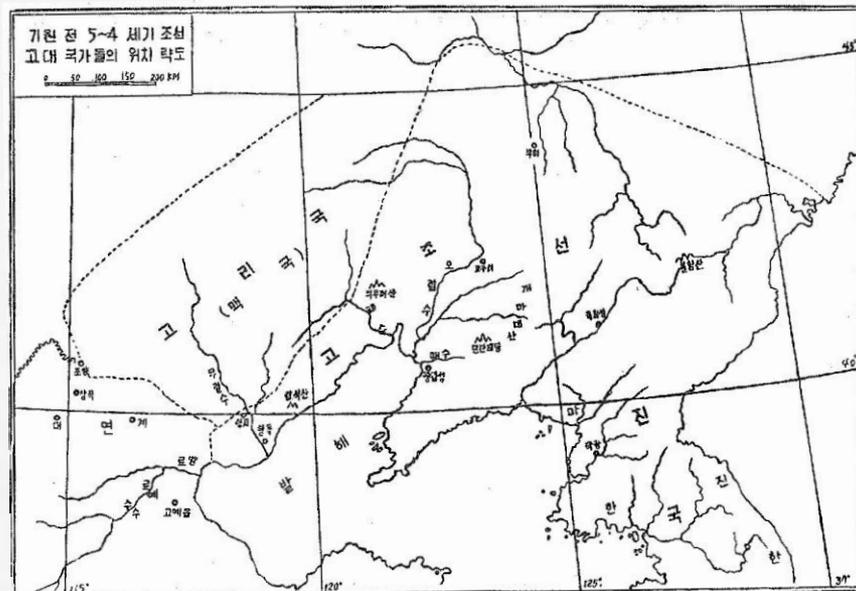
- BC 3C 초까지 요동 · 요서 · 우북평(석성)에 이름
- ※ 고대의 요동은 요하가 아닌 난하 동쪽
- 난하 하류 좌안 지대인 창려는 고조선의 도읍지
- 한사군은 한반도에 위치하지 않았음

■ 고대 조선 종족

- 기원전 2천년전 조이(鳥夷)가 살던 곳에 예와 맥이 북방에서 남하하여 혼합
- 기원전 1천년경 예 · 맥 · 한을 형성(동일한 언어와 풍습을 가진 족)

① 예족 : 하북성~요서 · 요동일대와 송화강 유역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에 거주
→ 고조선 · 진국(삼한)형성

② 맥족 : 흉노와 장기간 인접하던 동호로 북방족의 범칭. 예족과 동일한 종족의 두갈래
→ 고리국 · 부여 · 고구려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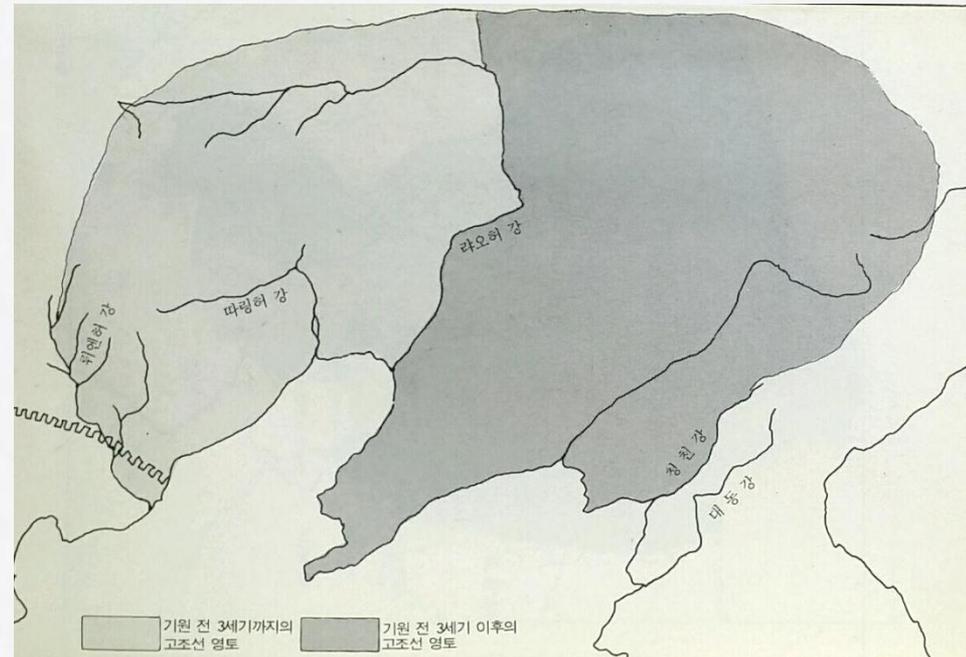


■ 고조선 영역

- BC 3000년대말~2000년대초에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청동기 시대 시작
- 기원전 3세기까지는 난하가 경계
- 기원전 3세기 이후 요하가 경계
- 기자조선은 한대에 조작된 사료

■ 고조선 인종구성

- 알타이족 이주자들이 고조선 주민의 근간을 이룬 예맥족의 선조인 원시 한민족
- 단군신화는 BC3000년대 후반~100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대한민족 특히 예맥족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중앙아시아 → 남만주)로 이주해 가는 과정을 반영



6 고조선연구 (윤내현, 1994)

- BC2400~2300년경 아사달(아침땅=조선)이 주변 고을나라들을 통합하여 한국사 최초 국가 「고조선」 건설(BC100년초 분리)

※ 비파형동검 연대(BC1000~900년) 전에도

만주·한반도에 청동기 시대 존재 확인

- 고조선의 출현으로 아사달족(조선족)을 중심으로 한민족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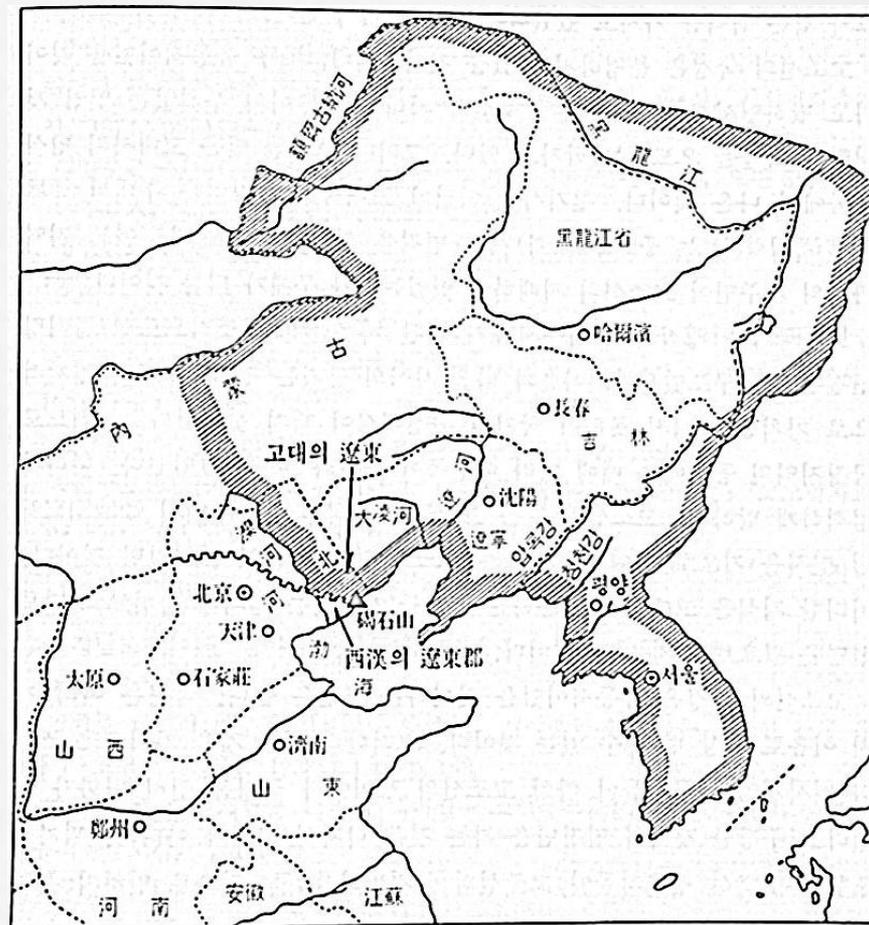
- 고조선은 한반도·만주전지역을 지배하던 대국

- 서쪽 : 난하·갈석산, 북쪽 : 아르군 강, 동북쪽 : 흑룡강·연해주, 남쪽 : 남부해안
- 부여, 고죽, 고구려, 예, 맥, 기자국, 진번, 낙랑, 임둔, 현도, 숙신, 청구 등... 거수국 통치.

※ 기자국, 위만조선, 한사군 등은 고조선 서부 변경인 난하유역에서 일어난 사건

- 단군은 대대로 계승

※ 단기고사·단군세기·규원사화의 단군 47세 소개



(고조선 후기의 강역도 :

한반도 + 동북3성 + 하북성동북부 + 몽고자치구동부)

7 단군세기 등 기록으로 본 고조선

■ 단군시대 : 47대 2096년 (BC 2333~238)

① 송화강 아사달시대(흑룡강성 아사달) : 삼한

- 1~21세 단군(1048년)

- 삼한 : 진한(요동, 만주), 변한(요서),
마한(한반도)

② 백악산 아사달시대(길림성 장춘) : 삼조선

- 22~43세 단군(860년)

- 삼조선 : 진조선, 변조선, 막조선

③ 장당경 아사달시대(요령성 개원) : 대부여

- 44~47세 단군(188년)

- 삼한관경제가 붕괴 → 국호 변경

- ① 왕검 ② 부루 ③ 가륵 ④ 오사구
- ⑤ 구을 ⑥ 달문 ⑦ 한을 ⑧ 우서한
- ⑨ 아술 ⑩ 노을 ⑪ 도해 ⑫ 아한 ⑬ 흘달
- ⑭ 고불 ⑮ 벌음 ⑯ 위나 ⑰ 여을 ⑱ 동엄
- ⑲ 종년 ⑳ 고흥 ㉑ 소태 ㉒ 색불루
- ㉓ 아홀 ㉔ 연나 ㉕ 솔나 ㉖ 추로 ㉗ 두밀
- ㉘ 해모 ㉙ 마휴 ㉚ 내휴 ㉛ 등을 ㉜ 추밀
- ㉝ 감물 ㉞ 오루문 ㉟ 사벌 ㊱ 매륵
- ㊲ 마물 ㊳ 다물 ㊴ 두홀 ㊵ 달음 ㊶ 음차
- ㊷ 을우지 ㊸ 물리 ㊹ 구물 ㊺ 여루
- ㊻ 보을 ㊼ 고열가

<참고> 고대사를 기록한 논란의 3사서

환단고기 : 전해오던 고대사 자료를 1911년 계연수가 편찬

	저자	시대	
삼성기 상	안함로	신라	환국, 배달국, 고조선 건국
삼성기 하	원동중	고려(?)	환국, 배달국 역사
단군세기	이암	고려말	47세 단군 역사
북부여기	범장	고려말	부여사
태백일사	이맥	조선중중	환국, 배달국,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사

단군세기 : 729년, 발해 대야발저(대조영 지시로 13년간 탐사)

- 발해문을 825년 한문(황조복) → 1949.59년 국한문 번역
- 47세 단군 기록(2096년)
- 단군조선과 별개의 기자조선(42세:1097년) 기록

규원사화 : 1675년, 북애(北崖)가 저술

- 「조대기」(멸실)를 참고한 「진역유기」(고려공민왕, 이명)등 40여 사서를 참고
- 복희의 팔괘창시, 치우천황의 정벌과 탁록대전
- 47세 단군재위기록(1195년 : 단기고사, 단군세기와 재위기간 차이)

8 고조선의 분열과 부여시대

■ 신채호: “부여는 「신조선」의 별명이고 신조선에서 북부여·동부부여·남동부여가 나온것”

■ 고조선(대부여) 멸망 후 해모수가 북부여 건국 (BC 239~58)

① 해모수단군 ② 모수리 ③ 고해사

④ 고우루 ⑤ 고두막(동명왕) ⑥ 고무서

※ 북부여는 고조선을 계승하고 고구려로 역사가 이어짐

■ 동부여(BC86 ~ AD22) : 북부여에서 분리

① 해부루 왕 ② 금와 ③ 대소

※ 갈사부여, 연나부 부여로 이어지다 494년 고구려에 병합

■ 남삼한

- 말조선 : 남쪽 월지국으로 천도(익산)

→ 불조선 기준에 멸망 → 말한 : 마한

- 신조선 : 낙동강우안에 정착(경주) : 진한

- 불조선 : 낙동간우안에 정착(김해) : 변한

번조선 (요서)

→ 위만조선

→ 한사군(?)

진조선 (요동·만주)

→ 북부여 등

→ 고구려

→ 발해

말조선(한반도)

→ 낙랑국(북부)

→ 남삼한(남부)

· 말조선 → 마한

· 신조선 → 진한

· 불조선 → 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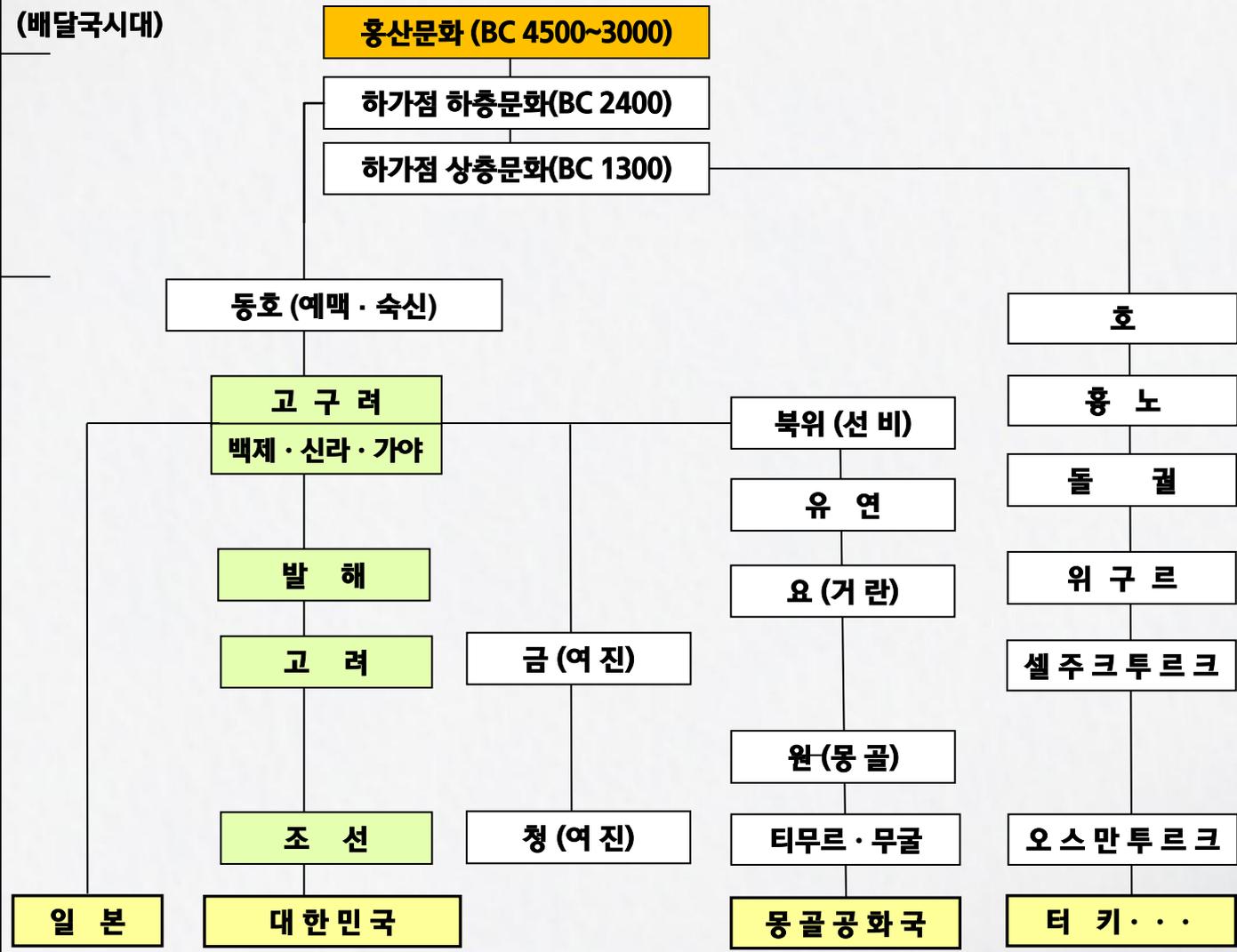
<조선상고사>



후기신석기시대 (배달국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시대)

철기시대





맺음말

1.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 · 최강의 문화국가로 성장

- 한반도 · 만주 등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는 제국 건설
- 한반도로 영역이 축소되면서 세력이 약화



중국

- 황하 중류에서 우리 민족보다 늦게 형성된 문화
- 중원으로 확대된 이후 북방 이민족과 교류·투쟁
 - 중앙아시아로 진출, 유럽 등 세계와 교류확대
- 근대화가 지연되었으나 개방으로 세계화 성공
 - 세계 강국으로 성장



일본

- 국가형성 지연(AD 670년), 섬나라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정체성 확보
-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문화를 적극 수용
 - 세계전략 추진
- 제1,2차 세계대전 참전
 - 경제·과학기술 대국



우리나라

-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강국가를 건설 하였으나 고구려·발해의 맥을 상실
 - 한반도로 영역 축소
- 대외교류의 지리적 장애
 - 반도국가: 삼면이 바다
 - 만주세력과의 단절
 - 황하 유역은 중국이 장벽
- 근대 초기 쇠국정책 → 발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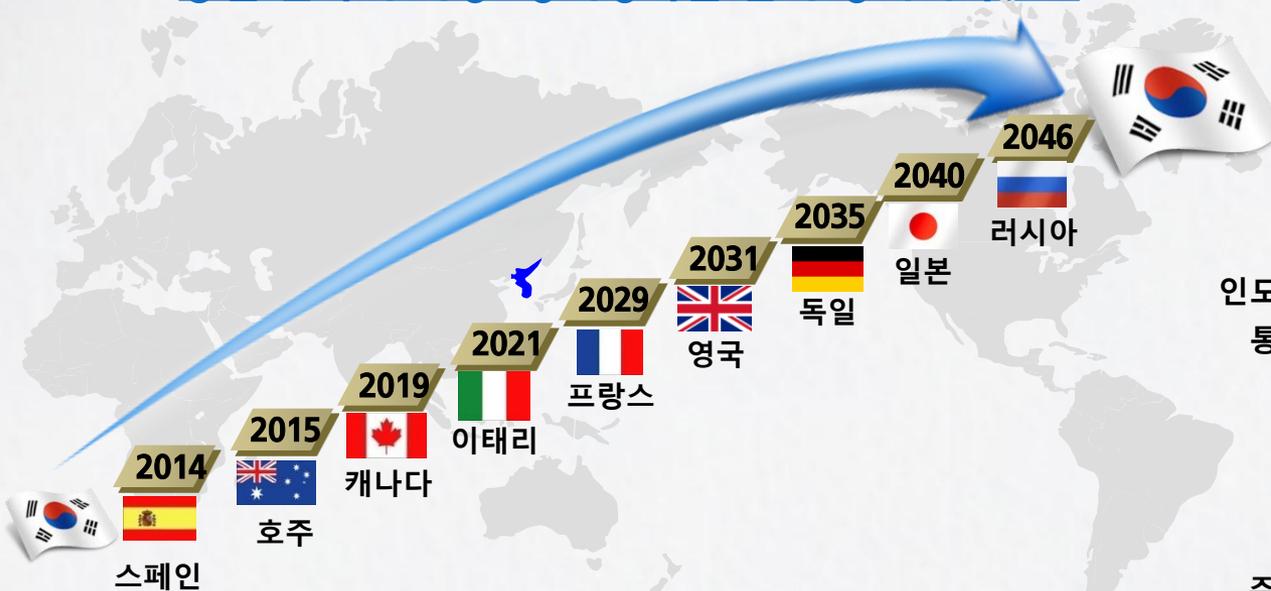
- 인류사회·문화는 서로 다른 것과 충돌·상호작용하면서 성장 발전
 - 상호간의 영향·보완·자극·경쟁·투쟁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한민족의 미래는 열린 세계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에서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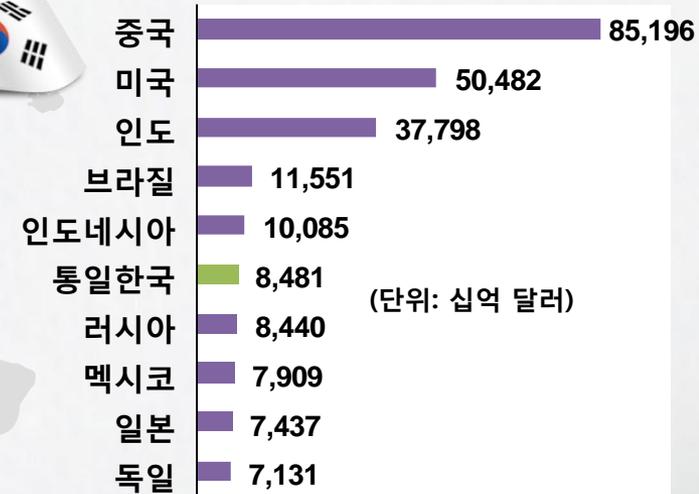
2. 미래의 통일 한국 : 2046년 세계 6위 경제대국

- 역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운용과 남북통일 ⇒ 세계 중심국가로 등장
- 2021년 이태리를 제치고 10위에 진입, 2046년 러시아를 제치면서 6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

통일 한국의 위상: 경제강국을 넘어 경제대국으로



2046년 세계경제 10대 국가



주: 2013년 US dollar 기준

주: 1. 연도는 남북한을 합한 GDP 규모가 해당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기

2. 2014~205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2.6%(남한), 5.2%(북한), 물가(디플레이터)상승률은 1.7%, 원/달러 환율은 800원까지 절상 가정

3. 신흥국 중 인도네시아는 2042년에 한국을 앞설 것으로 추정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10); Goldman Sachs, *The Long-Term Outlook for BRICs and N-11*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2009);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2008) 등 참조